

지역교회에서 통통성경학교의 목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강화베다니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하진영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8년 5월

Copyright © 2018 Jinyoung Ha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Ministerial Functions of Tong Bible School in a Local Church A Case Study of Ganghwa Bethany Methodist Church, Incheon, Korea

Jinyoung Ha

Ganghwa Bethany Methodist Church, Incheon, Korea

The churches in Korea have achieved a tremendous growth which is, in fact, hardly observed in any other places throughout the world history. However, after the 1990's, the growth of churches has almost stopped, and as a matter of fact, they are gradually declining nowadays. The bigger problem is that we can find any succession of faith to next generations at all these days. The author assumes that future Christianity depends on the succession of faith in the family and begins this thesis from a consideration over what is an effective way that parents can use to teach the Bible to their children. As one of the alternatives, the researcher suggests Tong Bible School (TBS) here and also examines the ministerial functions of TBS.

To address the goal, the author has adopted 'Tong Bible' methodology for the research. 'Tong Bible' methodology is defined as a way of reading all the sixty-six books of the Bible not as 'fragmented books and multiple disconnected stories' but as 'one story' regarding time, space, and humans unitarily, individuals, families, and countries unitarily, and the kingdom of priests, five empires, and the kingdom of God unitarily.

TBS is such an effective method to read through and understand the Bible. Particularly, it is found to have the possibility of being used as a desirable method for religious education not only in the families but in the churches, too, in the future.

Spending the 500th year from the Reformation, the researcher hopes that all the Christian families and churches will return to the Bible. To realize it, in conclusion, the author suggests each individual church to start their own 'TBS.' The researcher can

confidently say that TBS is the best way that will allow the families and the churches to go into the path of revitalization once again.

## 국문초록

지역교회에서 통성경학교의 목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강화베다니교회 중심으로

하진영

강화베다니교회, 인천

그 동안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교회 성장은 멈추었고, 어느덧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세대로 신앙계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미래의 기독교가 가정에서의 신앙계승에 달려있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의 대안으로 통성경학교를 제시하고, 나아가 통성경학교의 목회적 기능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통성경’ 방법론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통성경’ 방법론이란 성경을 시간·공간·인간을 통으로, 개인·가정·나라를 통으로, 제사장 나라·5대제국·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면서, 성경 66권 전체를 파편화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 One Story로 읽는 방식이다.

통성경학교는 성경을 통독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미래의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교육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본 연구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모든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 결론적으로 각 교회에서 ‘통성경학교’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통성경학교가 가정과 교회를 다시 부흥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최고의 대안임을 확신한다.

## 목 차

감사의 글 .....	x
표 목차 .....	ix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1
연구의 방법 .....	3
II. 통성경학교(TBS)의 이해 .....	5
통성경이란 무엇인가? .....	5
통성경학교란 무엇인가? .....	12
통성경학교의 성서적 근거 .....	15
III. 통성경학교의 운영과 실제 .....	21
통성경학교의 특징 .....	21
통성경학교의 목표와 비전 .....	22
통성경학교의 방법론 .....	22
통성경학교의 커리큘럼 .....	31
통성경학교의 단계별 교육과정 .....	38
통성경학교의 교재 .....	42
통성경학교의 강사 .....	48
통성경학교 개설과 운영 .....	51
IV. 통성경학교의 기능 .....	55
효과적인 성경 통독.....	55
패밀리 스쿨 -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적 대안 .....	61

교회교육 프로그램 .....	67
목회자를 위한 통설교 .....	71
<b>V. 통성경학교 수료자 심층 인터뷰 .....</b>	<b>73</b>
인터뷰개요 .....	73
심층 인터뷰 사례 .....	74
결과 분석 .....	79
<b>VI. 결론 .....</b>	<b>87</b>
요약과 평가 .....	87
결론과 제언 .....	88
<b>참고 문헌 .....</b>	<b>95</b>



## 표 목차

<표1> 통성경 7개 트랙 .....	31
<표 2> 성경의 40 개 줄기 .....	36
<표3> 기초반 1안 10주 과정 .....	39
<표4> 기초반 2안 44주 단계별 과정(1~5단계) .....	40
<표5> 오프라인 통 성경교재 내용 구성 - 10주 30강 .....	43
<그림1> 통성경 그림 .....	25
<그림2> 통성경 율동 .....	26
<그림3> 통성경 공식 .....	27

## 감사의 글

신학을 공부하고 더불어 자연스럽게 목회에 입문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선지동산에서 학문을 연마하며 비전을 키웠고, 또 목회현장에서 온몸으로 고민하며 복음을 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담임 목회를 해보았습니다. 비록 10명도 채 되지 않는 성도들이었지만, 내게 처음 성도는 그 누구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끝나갈 무렵 강화 베다니교회 담임자로 초빙되어 제2의 목회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목회에 익숙해져 가면서도, 뭔가 가슴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허전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병호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통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신기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다면, 조병호 박사님과 만남은 제 목회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통성경을 알고, 통성경과 함께 한지 어언 8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을 부끄럽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박사과정 중에 저는 세 가지 소중한 소득을 얻었습니다. 첫째, 세계에서 가장 월등한 선생님 세 분, 곧 레너드 스윗, 조병호, 김영래 교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제 안에 있던 가능성을 터치해주시고, 우물처럼 길어 올려 주신 세 분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내게 지식의 가치를 일깨워 주신 조병호 박사님과 이 줄고를 끝까지 지도해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성경을 진정으로 가질 수 있게 되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나도 나의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저를 깨우쳐 주신 조병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셋째,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소중한 동역자들을 얻었습니다. 교단과 나이를 떠나 함께 했던 D. Min 3기 동역자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과 사랑을 제 마음에 새겨주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동지들이고, 함께 통성경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함께하시고 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묵묵히 사랑과 내조를 아끼지 않은 나의 소중한 아내 김현정에게 또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아버지를 믿고, 패밀리 스쿨이 가능함을 확신시켜준 우리 장남 이레, 둘째 늘소망, 막내 은총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더불어 나의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나를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신 강화 베다니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에게도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2018년 3월 2일 강화 베다니교회 창립 28주년 아침에

목양실에서

하진영

## 제 I 장

### 서 론

####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교회와 기독교인의 숫자가 말해 준다. 야간에 비행기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면 보이는 것은 빨간 십자가뿐이라는 우스갯소리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흥의 정점은 1990년대였다. 실제로 1990년대 한국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와 선교의 미래를 짊어질 나라로 평가 받았다. 다수의 한국교회가 세계 30대 교회 안에 들었고, 기독교 역사상 단일 교회로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교회다.<sup>1</sup>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교회 성장이 멈추고,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평가가 안팎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sup>2</sup> 기어이 한국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더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교회 성장의 정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과 더불어, 그 같은 현상을 반등 시킬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성장은 수평 이동에 따른 성장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성장은 아니다. 이미 서구 교회, 특히 유럽 교회들이 급격히

---

<sup>1</sup>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4), 13.

<sup>2</sup> Ibid.

노령화되면서 몰락했고, 이런 경향성은 기독교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현상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미래 학자인 최윤식에 따르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갱신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면 2050년~2060년경에는 400만, 아니 300만 명대로 교인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한다. 주일학교는 30~40만 명대로 줄어들 수 있다.<sup>3</sup> 특히 196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한 주일학교는 대략 1980년대까지 성숙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기독교 총인구가 199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과 달리 15년이나 빠른 1980년경부터 본격적인 하락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sup>4</sup> 필자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주일학교 곧 다음 세대의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감과 고민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에 대처할 것인가? 필자는 이 질문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신앙을 성공적으로 계승할 것인가라고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 보면 한국교회의 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렇다면 신앙 계승을 이루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필자는 신앙 계승의 승패는 결국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에 달렸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개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제시될 통성경학교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교회에서 또한 목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

<sup>3</sup> Ibid., 39.

<sup>4</sup> Ibid., 42.

##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 서론에서 통성경학교가 무엇인지 이해를 돕는 개괄적인 설명을 할 것이다. 먼저 ‘통성경’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통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학교로서,

‘통성경학교(Tong Bible School)’가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통성경학교의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통성경학교의 유의미성을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개교회와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본론에서는 통성경학교의 운영과 실제 그리고 통성경학교의 기능을 살펴보고, 이어서 통성경학교 수료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분석해 볼 것이다. 먼저 통성경학교의 운영과 실제에서는 통성경학교의 특징, 커리큘럼, 교육과정 그리고 교재를 살펴보고, 통성경학교의 기능에서는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장으로서 통성경학교가 성경 읽기에 얼마나 유익한지,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가정을 패밀리 스쿨로 만드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밝힐 것이다. 나아가 통성경학교가 교회교육 프로그램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목회자의 설교 방법론 중의 하나인 통설교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통성경학교 수료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통성경학교를 이수하고 배운 사람들이 통성경학교를 공부하기 전과 후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성경 읽기와 신앙에 어떤 결과와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통성경학교가 목회자들의 목회에 얼마나 유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전체 논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앞서 살펴본 통성경학교 운영을 통해 통성경학교가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밀리 스쿨을 가능하게 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하여 통성경학교가 개인의 성경 교육은 물론, 교회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목회자들의 목회적 기능에 상당한 유익을 끼칠 수 있음을 밝혀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통성경학교의 범위는 온라인강의를 제외한 오프라인 통성경학교로 제한한다. 다만 통성경학교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성경학교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와 교재는 소개할 것이다. 또한, 연구의 방법은 모두 세 가지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이론적인 서술이다. 둘째, 각종 표와 자료, 그림을 통한 시각적인 방법이 동원될 것이다. 셋째, 통성경학교를 이수한 사람들을 심층 면접하여 생동감 있는 분석을 진행하려고 한다.

## 제 II 장

### 통성경학교(TBS)의 이해

#### 통통 성경이란 무엇인가?

통통성경을 최초로 주창한 조병호는 통통성경을 이렇게 정의한다.

“통통성경이란 성경 66권 전체를 파편화(fragmented books and multiple disconnected stories)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소리 내서 읽는 것이다.”<sup>1</sup>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경 읽기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성경을 파편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를 통(通)으로 보는 대신, 장 별로 심지어 한 장 안에서도 단락으로, 그것도 모자라 요절로 나누어 성경을 본다는 것이다. 물론 성경을 깊이 있고 심도 깊게 보기 위해 성경을 장이나 단락 혹은 요절로 나누는 것도 때로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 읽기가 거기에 멈추어 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성경을 파편화하지 않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전제하에 통성경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고려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

<sup>1</sup>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6), 11.



### 시간·공간·인간을 통(通)으로

역사(歷史)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다.<sup>2</sup> 그런데 역사는 과거의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일어난다. 이는 역사가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조병호는 통성경을 역사의 세 요소 곧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말 속에는 성경을 ‘역사’라는 전제에서 봐야 함을 뜻한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허구나 소설이 아닌, 과거에 실재했던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시간, 공간, 인간의 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은 당연하다. 성경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 명의 인간이 들어있다.<sup>3</sup> 따라서 통통성경의 첫 번째 차원은 성경을 시간, 공간, 인간을 통(通)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보자. 우선 성경의 시간 이야기다. 성경에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시간이 통시(通時; diachronic, 시간의 세로축)로 들어 있다. 또한, 성경 속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절기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명절이 반복되며, 또한 이사야, 아모스, 미가, 호세아 등 주전 8세기 동시대 사람들이 공시(共時; synchronic, 시간의 가로축)로 들어있다.<sup>4</sup> 따라서 시간을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통시와 공시로 동시에 고려하여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역사 순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역사 순으로 편제되어 있지

<sup>2</sup> 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 <http://dic.naver.com/> (2018년 2월 1일 확인).

<sup>3</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8), 29.

<sup>4</sup> Ibid.

않다. 역사 순이 아닌, 전통적 분류법에 따라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순으로,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 순으로 되어있다.<sup>5</sup> 따라서 성경 전체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테면,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은 느헤미야가 예레미야보다 앞에 나오지만, 일어난 사건은 느헤미야가 예레미야보다 약 150년 정도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또한, 이사야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함께 보면 더욱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전 8세기라는 시간의 공통분모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을 공시와 통시로 보는 일은 성경을 통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요소이다.

다음으로 성경의 공간 이야기를 보자. 성경에는 1,500여 곳의 공간이 들어있다. 조병호는 성경 속 공간을 ‘보여줄 땅(지시할 땅)’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지정한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된 곳으로 이해한다.<sup>6</sup> 즉 1,500개의 공간은 물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들은 두 곳으로 수렴된다. 곧 구약성경에서 공간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곧 가나안으로 모아지고, 가나안은 다시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중된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공간은 ‘땅끝으로’ 그 방향이 바뀐다.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로 확정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비전 선언은 더 이상의 공간 이야기는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경의 공간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성경에는 약 1,500여 곳의 공간이 있으나, 이 공간은 지시할 땅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수렴되고, 그것은 다시

---

<sup>5</sup>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18~26.

<sup>6</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29.

땅끝으로 흩어진다.

끝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성경에는 5,000여 명의 인간을 담고 있다. 이 5,000여 명의 사람들은 남과 여,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 다양한 직업,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의 총집합이다. 그런데 조병호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단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눈다. 곧 순종한 사람들과 불순종한 사람들이다.<sup>7</sup> 이는 마치 구약성경의 역사가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간 왕과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으로 평가한 것과 같다. 이를테면,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75세의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간 아브라함, 애굽의 바로와의 협상을 통해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 5년 동안 31개의 도시국가를 점령함으로써 가나안 땅 정복을 완성한 여호수아, 끝까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을 비전으로 삼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 등은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거절하고 현실에 굴복해 버린 가나안 정탐꾼 10명,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벤엘에 두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을 뿐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던 여로보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했던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다.

이렇듯 역사를 볼 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통으로 보아야 하듯이, 성경도 어느 한 부분이 아닌 2,000여 년의 시간, 1,500여 곳의 공간, 5,000여 명의 인간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통(通)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통통성경이다.

---

<sup>7</sup> Ibid., 30.

### 개인·가정·나라를 통(通)으로

통성경의 두 번째 차원은 성경을 개인, 가정, 나라를 통(通)으로 보는 것이다.<sup>8</sup>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자. 모세는 태어난 지 세 달 만에 엄마 품이 아닌, 갈대 상자에 놓이게 된다. 이는 당연히 모세 개인의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의 일이기도 하다. 즉, 만약 아버지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어머니는 태우고, 모세의 누나가 가슴 졸이며 이 일을 멀리서 훑쳐보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일은 가족들의 합작품이며, 이는 모세의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도대체 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이는 마음을 합해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을까? 아니, 해야만 했을까?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엄마의 품이 아닌, 갈대 상자에 그것도 강가에 버리다시피 한다는 것은 아기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애굽의 통치자가 히브리민족의 사내아이를 죽이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히브리민족은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있었으나, 그들이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에 그런 일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역시 예수의 개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이 부부는 아기 예수를 집이 아닌, 마구간에서, 또한 베들레헴까지 가서 출산해야 했을까? 바로 로마 제국이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

<sup>8</sup> Ibid., 33.

제국의 명령이 평범한 가정의 출생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이자, 한 가정의 이야기이며, 또한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야기이다. 이처럼 성경을 보되 성경 속에 나타난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함께 통통으로 보는 것이 통통성경이다.

###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마지막으로 통통성경의 세 번째 차원은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보는 것이다.<sup>9</sup> 조병호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출 20:2)” 라는 성경 구절을 제사장 나라의 헌법 제1조로 이해한다.<sup>10</sup> 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다. 다시 말해 히브리민족은 약 400년 동안 제국을 뺏속 깊이 경험하면서 제국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나라인가를 경험했다. 이런 경험은 히브리민족이 만들어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곧 이스라엘은 다른 여타 나라들과 달리 출발부터 제국처럼 다른 민족과 나라를 종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즉, 이스라엘이 만들 나라는 여타의 세속 국가와 다른 제사장 제도와 율법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 나라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 나눔과 거룩이 있으며, 모든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나라이다.<sup>11</sup> 결단코 제국처럼 다른 나라를 노예화하여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출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 5경을 국가의 법으로

<sup>9</sup>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13.

<sup>10</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33.

<sup>11</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4), 47-48.

하여 야심 차게 출범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채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저버리고 말았다.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거룩한 시민의 사명도 감당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며 가장 기초적인 율법 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안으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밖으로는 5대 제국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 힘쓰셨다. 따라서 <이사야>를 이해하려면 앗수르 제국과 함께 봐야 하고, <예레미야>를 이해하려면 바벨론 제국과 함께 보아야 한다. 당연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제사장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다. 또한, 성경 속 명절인 <수전절>은 헬라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 틀이기에 신약 성경과 로마 제국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조병호는 이러한 제국 변동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으로 가는 세계경영 과정에 5대 제국을 사용하신 것으로 이해한다.<sup>12</sup>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구약성경 속의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sup>13</sup>를 통으로 보는 것이 통성경이다.

<sup>12</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34.

<sup>13</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20-221.

위의 논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통(通)성경이란 성경을 시간·공간·인간을 통통으로, 개인·가정·나라를 통통으로,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통으로 보면서, 성경 66권 전체를 과편화 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 One Story로 읽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이런 성경 읽기의 방법론으로 ‘모든 성경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가정에서 5세 때부터’ 가르치는 것을 꿈꾸는 것이 통성경의 비전이며, 그리하여 성경에 관한 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라는 결론으로 나가는 것이 통성경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sup>14</sup>

### 통통성경학교란 무엇인가?

#### 통통성경학교의 정의(定義)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광야 40년 로스쿨을 마친 만나세대에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당부를 했다.<sup>15</sup>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자.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마갈 문에 기록할지니라”<sup>16</sup>

신명기 6:4-9은 신 6:4의 첫 단어를 따라 ‘쉐마’ 로 불려진다.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쉘마는 원래 6단어로 구성된 신 6:4만을 일컬었으나 후에 5절이

<sup>14</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36.

<sup>15</sup> 조병호, *통박사 조병호의 통성경학교*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6), 4.

<sup>16</sup> 신명기 6장 4-9절(이하 개역개정성경)

포함되었고, 더 나아가 본문부터 시작하여 한 단락을 이루는 4절부터 9절까지를 일컬었다고 한다.<sup>17</sup> 이 쉼마의 핵심 두 가지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과 ‘자녀에게 가르치라’ 는 것이다. 가르치되 모세가 명령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다. 이 명령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모압 평지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육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통성경학교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한다. ‘통통성경학교’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통성경학교는 말 그대로 통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말한다. 성경을 가르치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을 통으로 가르쳐야 한다. 성경을 파편화하지 않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하나의 스토리로 가르쳐야 한다.

#### 통통성경학교의 의의(意義)

통통성경학교가 여타 다른 성경학교와 차별화되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성경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다른 학교와 비슷하지만, 앞서 언급한 통통성경을 가르친다는 점(성경을 통으로 가르친다는 말과도 같다.)에서 다른 성경학교와는 크게 차별화된다. 즉 통성경학교는 성경 66권을 가르치되 부분이 아닌 전체로, 성경 66권을 동등하고도 균형 있게 통통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가르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경을 지나치게 파편화했다. 구약과 신약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눈 신약과 구약을 다시 각 권으로 분리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눈 각 성경은 또 장(chapter)로 나뉘고, 각 장은 또한 각 절(verse)로 분리된다. 이같이 성경을 나누어 보는 것도 때로 필요하고, 또 나름의 목표를 달성할 수

---

<sup>17</sup> 옥스퍼드 원어성경 대전 신명기 제1-11장 (서울: 성서교재, 1999), 402-403.



있으나, 이 같은 방법론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면, 필연적으로 성경은 과편화되고 만다. 그럴 경우 성경의 긴밀한 연계성이 결여되고, 해석이 상당히 편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짙다. 쉽게 말해 지나치게 나무에 집중하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성경의 과편화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

### 통성경학교의 핵심 가치

또한, 통성경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성경학교의 핵심가치인데, 바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The Bible As One Story is Wholly Enough in our lives.)’ 라는 믿음과 고백이다. 이 믿음과 고백을 바탕으로 성경 전체를 누구나 ‘이야기’로 말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코스가 바로 통성경학교이다. 이 같은 이해 아래 통성경학교의 미션은 ‘5세에서 20세까지 부모에게 성경을 배운 자녀들이 20세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성경을 체험하고 성경으로 행복해지는 패밀리 스쿨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는다.<sup>18</sup> 요약하자면 통성경학교란 ‘모든 부모가 성경 전체(통성경)를 공부하여 자기 자녀에게 성경을 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 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오프라인(Offline) 통성경학교와 온라인(Online) 성경학교

그런데 통성경학교는 가르쳐지는 물리적 공간에 따라 오프라인 통성경학교와 온라인 성경학교로 나뉠 수 있다. 오프라인 통성경학교는 개교회 또는 특정 지역의

---

<sup>18</sup> 조병호, *통박사 조병호의 통성경학교*, 4-5.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의 공간을 정해놓고 진행한다. 특정 지역을 정해 최소 2개 교회 이상 연합으로 진행할 경우 그 지정된 곳을 Center라 부르는데, 이를테면 필자가 속한 교회는 인천시 강화군에 속해있고, 경기도 김포와 근접해 있으므로 통성경학교를 개설할 당시 <경기 김포강화 센터>로 명명하고 학교를 열었다.

오프라인 통성경학교는 공부하는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강사와 학생이 얼굴을 마주 보고 강의를 진행하기에 생동감이 넘치고, 현장감이 살아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온라인 통성경학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등록하여 공부하고 과제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통성경학교와 구별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현장감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다. 온라인성경학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율적으로 등록하여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모든 강의를 빠짐없이 수강하고, 과제를 100% 수행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성경학교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 통성경학교의 성서적 근거

통성경학교가 가능한 성서적 근거를 살펴보자. 성경을 보면 성경(율법)을 가르치는 수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필자는 우선하여 성경에 나타난 성경 교육의 실례를 통해 통성경학교의 성서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약을 통해 모세, 사무엘, 에스라의 성경교육과 포로기 이후의 회당 그리고 신약을 통해 예수의 성경 교육을 살펴보자.

### 모세의 만나 학교

모세의 사명은 400년 동안 노예로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데스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은 모세의 사명을 출애굽에서 다음 세대의 교육으로 옮겨가게 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20세 이하의 청소년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부여 받았다. 바로 여기에 모세의 교육적 사명이 있다. 조병호는 이를 일컬어 모세의 로스쿨(law school)이라는 표현을 쓴다.<sup>19</sup> 다음의 내용을 보자.

모세의 로스쿨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직 20세를 넘기지 않는 청소년들, 그리고 사막에서 새로 태어난 아가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자신이 직접 쓴 책을 교과서로 하여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로스쿨(law school)을 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교육했습니다.<sup>20</sup>

결국, 모세는 40년 동안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세 5경을 가르쳤고, 그 성과는 놀라웠다. 출애굽 세대의 교육 성공 확률이 60만분의 2(여호수아와 갈렙)였다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모세에게 율법을 배운 만나 세대<sup>21</sup>의 교육 실패 확률은 60만분의 1(아간)이었다.<sup>22</sup>

<sup>19</sup>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33.

<sup>20</sup> Ibid.

<sup>21</sup>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3*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7), 74. 조병호는 이 책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를 만나 세대로 부른다.

<sup>22</sup> Ibid., 96.

### 사무엘의 미스바 성회

사무엘은 350여 년의 사사 시대를 종식시킨 마지막 사사였다. 모세가 40년 동안 20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율법을 교육하여 만나 세대를 탄생시켰다면, 사무엘은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여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켰다.<sup>23</sup>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약 20여 년 동안 엘리의 ‘제사장 나라’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다.<sup>24</sup> 그리고 엘리의 뒤를 이어 약 20년 동안 벤엘, 길갈, 미스바, 라마를 순회하며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재교육하며, 그들을 다스렸다.<sup>25</sup> 교육의 성과는 놀라웠다. 곧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과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자는 민족적 합의를 이루어내어 사사 시대 350년의 묵은 죄를 털어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sup>26</sup> 사무엘의 미스바 성회의 핵심 역시 율법을 통한 제사장 나라의 재교육이었다는 점에서 성경 교육의 훌륭한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 에스라의 성경 통독집회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으로서 율법에 익숙한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겠다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했다. 에스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느헤미야가 성벽재건을 완성했을 때, 온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

<sup>23</sup> Ibid., 117. 조병호는 이 책에서 20년 동안 사무엘로부터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한 세대를 미스바 세대로 칭한다.

<sup>24</sup> Ibid., 119.

<sup>25</sup> 사무엘상 7:15~17.

<sup>26</sup> 사무엘상 7:3~6.

절기를 지키게 하는 등 종교개혁을 이끌었다. 특히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낙성식을 기념하면서 모든 백성을 위한 성경 통독집회를 열었는데, 일주일간 계속된 이 집회를 통해 에스라는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 5경을 읽고 그 뜻을 설명해주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병호는 이 같은 부흥의 역사를 1, 2, 3차에 걸쳐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재건 공동체가 되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된 것으로 이해한다.<sup>27</sup> 즉,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성전재건과 성벽재건은 율법 교육을 통해 진정한 재건 공동체가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포로기 이후의 회당(會堂)에서의 성경 교육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 남유다는 삶의 구심점인 성전을 잃게 된다. 성전을 잃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까지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가 없어서, 여러 곳에 회당을 세워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회당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무어(George Foot Moor)의 주장을 들어보자.

“회당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포로 된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비롯한 그 외의 다른 포로지에서 안식일이나 중요한 명절, 혹은 금식일 등과 같은 특정한 날에 자발적으로 모여 이방 세계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상호 간에 확인하고 회복의 날이 오기를 격려하는 모임을 통해 회당이 태동하였다고 보는 견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추정이다.”<sup>29</sup>

<sup>27</sup> 조병호, *성경 즐기*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107.

<sup>28</sup> 최신 *성경사전* (서울: 성지사, 1993), 1035.

<sup>29</sup> George Foot Moore, *Judaism in the First Centuries of the Christian Era*, 283. 권혁승, “회당의 기원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13 (2002년), 100에서 재인용.

이같이 바벨론에서 시작되어, 드디어 본국에도 옮겨짐과 함께, 흩어진 사람들 사이에 퍼져, 1세기 무렵에는 유대인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작은 성읍에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정확한 시작이 언제인지는 불명확하다 해도 회당의 목적은 분명하다. 곧 회당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위한 장소였다는 것이다. 특히 회당의 주목적이 가르침이었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마 4:23을 보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신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모두 55번 등장한다. 이로 보건대, 포로 후기에 시작된 회당이 신약 시대에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 예수님의 제자교육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 사역을 열두 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하신다. 예수님은 3년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면서 수많은 사역을 함께했는데, 특히 제자들의 교육에 집중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교육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고, 교육을 위한 교재는 구약성경이었으며, 교육 방법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질문을 통한 참여적인 방법이었다.<sup>30</sup> 예수님의 이 같은 교육은 3년 후에 뚜렷한 성과로 나타났다. 한때 서열 다툼을 하고, 자리다툼을 했던 제자들은 어느덧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하고 논쟁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sup>31</sup> 특히 제자들의 성경 지식수준은 그들의 설교와 그들이

<sup>30</sup>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3, 347.

<sup>31</sup> 사도행전 4:10에서 사도들은 감히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와 모든

쓴 신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을 남겼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등 5권의 책을 기록했다. 평범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남겼다. 이들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마태가 쓴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구약 2천 년의 역사를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 세 사람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 놀라운 통찰이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성경 교육이 얼마나 월등했는지를 알 수 있다.

## 제 III 장

### 통성경학교(TBS)의 운영과 실제

#### 통성경학교의 특징<sup>1</sup>

통성경을 가르치는 통성경학교의 특징을 모두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통성경학교의 커리큘럼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통성경을 공부하면 적어도 다음의 7가지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The Moment: It is finished)’을 이야기할 수 있다. 둘째,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 셋째, 성경 전체를 7개 질문과 답으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넷째, 성경 전체를 20개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섯째, 성경 전체를 40개의 줄기<sup>2</sup>로 정리할 수 있다. 여섯째, 12개의 기도 샘플을 통해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기도할 수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9개의 샘플을 통해 전도할 수 있다. 통성경학교는 외형적으로 볼 때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다른 학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다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

---

<sup>1</sup>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리플렛, 4.

<sup>2</sup> 온라인 통성경 교재의 경우 조금 더 세분화하여 52개 줄기이다. 아래의 44페이지를 참조할 것



### 통성경학교의 목표와 비전<sup>3</sup>

앞서 필자는 통성경학교가 통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통성경학교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 통성경학교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신 6:7)” 는 명령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인가? 다름 아닌 ‘살아 계신 하나님’ 이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한다. 명령은 선택과는 다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한다. 따라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모가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통성경학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부모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이다. 물론 부모만이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 목회자, 교회 임원, 그 밖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통성경학교를 통해 성경을 배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비로소 가정은 Family School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통성경학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패밀리 스쿨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5세부터 20세까지 성경을 가르쳐 자녀들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모든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성경을 체험하고 성경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 통성경학교의 방법론

성경을 통으로 보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통성경학교의 방법론으로 이어진다.

---

<sup>3</sup>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6), 4.

통성경학교의 방법론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요절 한두 구절이 아닌,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공부하는 것이다. 성경은 66권이다. 그리고 66권 성경은 각각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서로 다른 각각의 독특성과 완결성을 가진 66권의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곧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통성경학교는 이런 방법론으로 성경의 7가지 주제를 전체 이야기로 가르친다. 첫째, 십자가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가르친다. 둘째, 나라 이야기(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로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르친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르친다. 넷째, 성경 줄기로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르친다. 다섯째, 성경을 통한 기도로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르친다. 여섯째, 전도 이야기로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르친다. 일곱째, 성경을 통독하게 하며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르친다. 이렇게 모두 7가지 주제로 성경 전체를 배우다 보면, 서로 다른 7가지 주제와 접근법으로 성경을 모두 7번 전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복을 통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월등한 방법론이 아닐 수 없다.

통성경학교의 방법론 두 번째는 5세 아이들에게 5개 통성경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성경학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부모가 성경을 배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곧 각 가정이 패밀리 스쿨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통성경학교가 목표로 하는 패밀리 스쿨 학생의 시작 연령은 5세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5세인가? 여기에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 먼저 구약의 신명기 6장 7절을 보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여기서 자녀가 ‘누워 있을 때에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다. 자녀가 부모 곁에 누워있다는 것은 그 자녀가 나이가 아주 어린 아기임을 암시해준다.

또한,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영어 성경 NRSV<sup>4</sup>, NASB<sup>5</sup>는 모두 from childhood로 번역했고, NIV<sup>6</sup>, ISV<sup>7</sup>는 from infancy로 번역했다. 심지어 메시지(MSG) 성경<sup>8</sup>은 ‘어려서부터’ 를 아예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with your mother's milk)’ 로 번역하여 연령대를 훨씬 더 낮추고 있다. 조병호는 from infancy 번역을 존중하여, 그리고 앞선 신 6:7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시기를 5살로 규정한다.<sup>9</sup> 덧붙여 5살 아이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5살이 되면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조병호는 주장하는데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sup>10</sup> 이렇게 5살 난 아이에게도 성경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시청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

<sup>4</sup>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년판.

<sup>5</sup> *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97년판.

<sup>6</sup> *New International Version* 2011년판.

<sup>7</sup>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2011년판.

<sup>8</sup> Eugene H. Peterson, *메시지 신약 영한대역* (서울: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10),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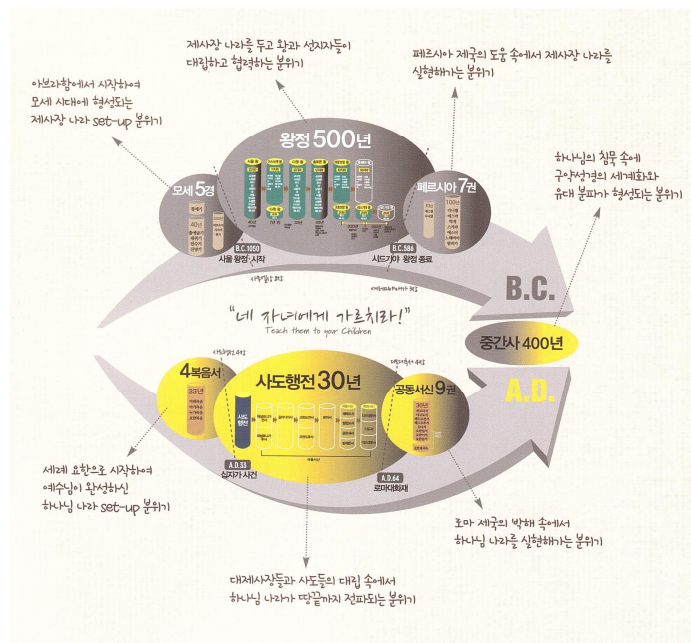
<sup>9</sup>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14.

<sup>10</sup> Ibid.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이 같은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통성경 그림

그림은 문자와 달리 어떤 내용이든 한눈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아래의 <통성경 그림>을 통해 성경 66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그림은 성경 전체를 7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각각의 분위기를 보여주는데<sup>11</sup>, 무엇보다 성경 66권을 역사 순으로 각 트랙에 맞게 배치하여 성경 66권 전체의 배경과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통성경 그림>으로 불리는 이 그림은 조병호가 지난 30년의 성경 연구의 결과로 창안한 것인데, 참으로 놀라운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통성경학교는 아래의 통성경 그림 이외에도 수많은 그림을 사용하여 성경을 머리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익힐 수 있도록 가르친다.

<그림1> 통성경 그림



<sup>11</sup> 7개 트랙의 분위기는 아래에 이어지는 4)번 통성경 분위기 항목을 참조하라.

## 통성경 운동

지식은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외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 때 지식이 된다. 통성경 운동은 통성경 그림을 외워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숫자가 기록된 손바닥을 순서대로 펴면서 7개 트랙을 외우고, 일직선으로 된 화살표를 그리며 중간사 400년을 기억한다. 그리고 양손으로 화살표를 ‘착, 착’ 소리를 내면서 각 트랙을 나누는 분기점에 있는 중요한 사람(모세5경과 왕정 500년 사이의 사무엘, 왕정 500년과 페르시아 7권 사이의 예레미야)과 사건(4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의 십자가 사건, 사도행전 30년과 공동서신 9권 사이의 로마 대화재사건)을 외워준다.

<그림2> 통성경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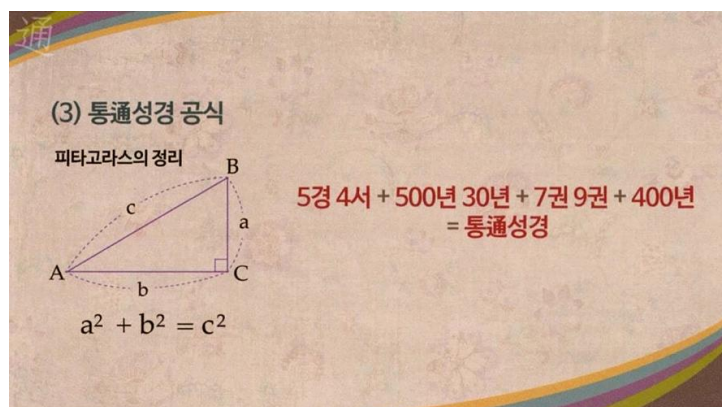


## 통성경 공식

수학의 공식은 그림만큼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논리와 법칙을 앞세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면 직각 삼각형의 각 변을 쉽게 알 수 있듯, 통성경 공식을 통해 통성경 그림에 나오는 성경의 권수와 중요한 연도를 한 번에 외울 수 있다. 위의 공식을 풀어쓰면 이렇다.

‘5경 4서’는 구약의 모세 5경과 신약의 4 복음서를 한 번에 비교하여 외울 수 있게 한다. 또한 ‘500년 30년’은 구약의 왕정 500년과 신약의 사도행전 30년을, ‘7권 9권’은 구약의 페르시아 7권과 신약의 공동서신 9권을 외우도록 돕는다. 그리고 400년은 신구약 중간사를 뜻한다.

&lt;그림3&gt; 통성경 공식



### 통성경 분위기

같은 24시간을 살아도 낮과 밤이 다르고, 같은 낮이라도 오전과 오후가 다르다. 또한, 같은 해(year)라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 분위기가 다르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같은 구약성경이라도 모세 5경의 분위기가 다르고, 왕정 500년의 분위기가 다르다. 조병호는 성경 전체를 7개의 트랙으로 나누고<sup>12</sup>, 구약은 제사장 나라로, 신약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그 분위기를 나눈다.<sup>13</sup>

첫째로, 모세 5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제사장 나라 setup 분위기이다.<sup>14</sup>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다. 곧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겠냐는 것이다. 이에 백성들은 흔쾌히 이 언약을 수용한다.<sup>15</sup> 이렇게 언약을 맺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제도를 주심으로 제사장 나라의 기초를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모세 5경의 분위기는 제사장 나라를 setup 하는 분위기라 할 수 있겠다. 이어지는 왕정 500년의 분위기는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다.<sup>16</sup> 곧 왕들이 제사장 나라에 충성도가 높으면 협력하고, 그렇지 못할 때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 가는 분위기다. 그리고 구약의

---

<sup>12</sup>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13.

<sup>13</sup>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212.

<sup>14</sup>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30.

<sup>15</sup> 출 19:5-8

<sup>16</sup>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114.

마지막 부분인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 가는 분위기다.<sup>17</sup>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 400년은 구약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가 형성되는 분위기라 할 수 있다.<sup>18</sup> 신구약 중간 시대 중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는 구약성경을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된다. 또한, 헬라 제국 가운데 셀루커스 왕조의 유대 핍박으로 인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생겨난다.

이렇게 약 400년의 침묵과 어둠의 시기를 지나 신약으로 오면 다시 3개의 서로 다른 분위기를 가진 트랙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4 복음서는 세례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set-up’ 분위기다.<sup>19</sup>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하듯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 되는 분위기이다.<sup>20</sup>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하나님 나라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것이 놀랍다. 마지막으로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 하는 분위기이다.<sup>21</sup> A.D.64년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사건은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

<sup>17</sup> Ibid., 192.

<sup>18</sup> Ibid., 224.

<sup>19</sup> Ibid., 254.

<sup>20</sup> Ibid., 300.

<sup>21</sup> Ibid., 362.



기독교인들은 A.D.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견디어 낸다. 이렇게 모두 7개의 서로 다른 분위기를 익히면, 성경 전체에 대한 윤곽을 쉽고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

### 통성경 7개 질문

교육의 방법론 가운데 질문을 통한 교육 방법은 매우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어느 교육 방법보다 월등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자주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창 3:9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 또한, 예수님은 마 16:15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 특히 예수님은 괜한 트집을 잡으려는 의도로 질문을 받을 때면, 어김없이 또 다른 질문으로 상대를 당혹하게 하셨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앉았는지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오히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눅 20:4)” 라고 질문하신다.

그런데 질문은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두뇌를 크게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교육 효과가 몹시 크다는 것이다. 노벨상을 받은 노르웨이 출신의 물리학자 게이바 교수는 “유대인은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 때문” 에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쓴다고 말했다.<sup>22</sup> 실제로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에는 “질문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고, 반대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

<sup>22</sup>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11.

속담이 있을 정도다.<sup>23</sup> 이런 이야기들은 교육하면서 질문이 얼마나 유의미한 수단인가를 방증해준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통성경학교에서도 질문을 통한 교육 방법론을 유의미한 수단으로 여긴다. 이에 대표적으로 성경 전체의 7개의 트랙을 7개의 질문으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공부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통성경학교 커리큘럼 Step 1을 참고하기 바란다.

### 통성경학교의 커리큘럼

통성경학교의 커리큘럼은 모두 7개의 트랙(track)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곧 Pre-Step 2개와 5개의 Step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1> 통성경 7개 트랙

Step	제목 및 주제
Pre-Step 1	The Moment(그 순간) (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
Pre-Step 2	성경과 영성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Step 1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7개 질문을 통한 나라 이야기)
Step 2	하나님 마음 (66권 경전을 통한 하나님의 심정 이야기)
Step 3	성경 즐기기 (52개의 성경 즐기기 이야기)
Step 4	성경을 통한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이야기)
Step 5	Family School (이야기 전도)

<sup>23</sup> Ibid., 12.

Pre-Step 1 - 그 순간( '다 이루었다 &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sup>24</sup>

Pre-Step은 본격적인 Step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부하는 예비 단계라 할 수 있다. 먼저 pre-step 1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곧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왜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통으로 조망해 본다. 이 pre-step 1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성막과 성전을 통으로 보는 것이다. 곧 여호와와 이름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었던 성전은, 처음에 움직이는 성막으로 500년 동안 그 역할을 하다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후 1,000년 동안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순간, 곧 '다 이루었다' 라고 한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은 찢어지는데, 이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가 끝났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그릇에 담기고, 그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강조점이다.

Pre-Step 2 - 성경과 영성(성경을 통한 영성 이야기)<sup>25</sup>

다음으로 Pre-Step 2에서는 성경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통해 기독교의 영성을 공부하게 된다. 성경과 영성을 각각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성경은 첫째, 얇은 책이다. 따라서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다. 둘째,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이다. 성경은 눈으로 문자를 봄과 동시에 소리를 통해 음성으로 읽어야 한다. 셋째, 성경은 1년에 10번 들을 만한 책이다. 이는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들음으로서 자연스럽게 성장이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넷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sup>24</sup> 조병호, 그 순간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4-72.

<sup>25</sup> 조병호, 성경과 영성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12-88.

담긴 책이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다섯째, 성경은 개인·가정·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따라서 성경은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가정의 이야기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통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성경에 대한 전이해(前理解)를 기반으로 영성 또한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영성은 첫째, 아는 것(Knowing)이다. 하나님은 오직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둘째, 믿는 것(Believing)이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셋째, 순종하는 것(Obeying)이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삶을 예배로 산다. 넷째, 체험하는 것(Experiencing)이다. 곧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체험한다. 다섯째, 영광을 돌리는 것(Glorifying)이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이렇듯 영성은 인간의 감성과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된다.

Step 1 -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7개의 질문을 통한 나라 이야기)<sup>26</sup>

Step 1에서는 7가지 질문을 통해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 나라와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관해 공부한다. 7가지 질문은 성경 전체를 7가지 트랙으로 나뉜 것에 기초한다.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하고, 이를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 7개의 트랙으로 나누는데, 구약을 3개의 트랙(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으로, 신약을 3개의 트랙(4 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으로, 그리고

---

<sup>26</sup> 조병호, *7가지 질문*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14-130.

구약과 신약의 사이를 1개의 트랙(중간사 400년)으로 나눌 수 있다.<sup>27</sup> 이렇게 나뉜 각 트랙에 해당하는 질문을 통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는데, 7개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 노력까지 했는가?

둘째,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셋째,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

넷째,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분파되었는가?

다섯째,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여섯째,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테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일곱째,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주다가 죽였는가?

이렇게 7가지 질문에 답하다 보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되고, 두 나라를 위해 5대 제국이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Step 2 - 하나님 마음(66권 경전을 통한 하나님의 심정 이야기)<sup>28</sup>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들어있다. 조병호는 3단계 공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sup>29</sup> 먼저 1단계는 하나님의 직접적, 간접적, 역설적 표현을 말한다. 2단계에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이, 그리고 3단계에서는 하나님의 꿈과 눈물, 지혜와 노래, 용기와 하나 됨, 온유와 겸손, 기다림 등 구체적인 마음의

<sup>27</sup>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13.

<sup>28</sup> 조병호, *마음훈련*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6-111.

<sup>29</sup>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105.

표현을 말한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조병호는 성경 전체를 모두 20개 마당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표현 20개를 <통성경 노래>로 만들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20가지를 쉽게 외울 수 있다.<sup>30</sup>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20 마당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마음 - 2. 열방을 향한 꿈 - 3. 만나 세대 - 4. 신앙 계승 - 5. 천년 모범 - 6. 마음과 지혜 - 7. 사랑의 줄 사명의 줄 - 8. 절망 앞에선 희망 - 9. 징계 희망의 디딤돌 - 10. 재건 공동체 - 11.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 12. 기쁨을 위한 탄생 - 13. 한 영혼 사랑 - 14. 용서를 향한 열정-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 16. 열리는 제자시대 - 17.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 18.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 1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 20.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 Step 3 - 성경 줄기(40개 성경 줄기 이야기)<sup>31</sup>

성경 줄기는 통성경학교 커리큘럼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꽃과 잎과 열매가 나무의 가지에서 열리고, 이 가지는 줄기에서 자라듯이 성경 줄기는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디테일한 이야기가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성경 전체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조병호는 성경 줄기를 40개의 이야기 줄거리로 나눈다. 40개 줄기를 7개 트랙과 20마당에 따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33</sup>

---

<sup>30</sup> 성경통독원 홈페이지 <http://tongdok.net> (2018년 2월 1일 확인)에 접속해서 음원을 내려 받을 수 있다.

<sup>31</sup> 조병호, *성경 줄기*, 12-179.

<sup>32</sup>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6), 100.

<sup>33</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24, 28-29.

&lt;표2&gt; 성경의 40개 줄기

7트랙	20마당	40개 줄기
1. 모세 5경	1. 하나님의 마음	1. 원역사
		2. 족장사
		3. 입애굽과 민족
	2. 열방을 향한 꿈	4. 출애굽과 제국
		5. 세계 선교의 꿈 - 제사장 나라
		6.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3. 만나 세대	7. 만나세대
		8. 만나 학교 졸업
	4. 신앙 계승	9. 약속의 땅 입성
		10.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11. 교육의 성공 사례
2. 왕정 500년	5. 천년 모범	12. 미스바세대
		13. 왕정의 시작
		14. 하나님의 종 다윗
	6. 마음과 지혜	15. 솔로몬과 시가서
		16. 남북 분열 왕조
	7. 사랑의 줄 사명의 줄	17. 북이스라엘 멸망
		18. 남유다 멸망
	8. 절망 앞에 선 희망	19. 잠간의 징계
20. 포로민 설득		
3. 페르시아 7권	9. 징계, 희망의 디딤돌	21. 제국 변동의 밑그림
		22. 성전 재건
	10. 재건 공동체	23. 성벽재건
		24. 고백과 침묵
4. 중간사 400년	11.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25. 헬라 제국과 중간사
		26. 로마 제국과 중간사
5. 4 복음서	12. 기쁨을 위한 탄생	27. 예수님 탄생
	13. 한 영혼 사랑	28. 공생애 3년
	14. 용서를 향한 열정	29. 마지막 일주일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30. 십자가 승리 - 하나님 나라
6. 사도행전 30년	16. 열리는 제자 시대	31. 열리는 제자 시대
	17.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32.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33.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4.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18.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35.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36.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37. 기독교론과 기적의 편지		
38.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7. 공동서신 9권	1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3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20.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40. 최후 승리의 노래

#### Step 4 - 성경을 통한 기도(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이야기)<sup>34</sup>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라 할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삶에서 항상 기도하며 산다. 따라서 기도를 바르게 가르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길이다.<sup>35</sup> 대화가 사람이 사람과 통(通)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통(通)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36</sup> 통성경학교에서 기도는 반드시 성경 줄기 공부를 마친 다음에 가르친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초 위에 기도를 배워 바른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을 통한 기도에서는 열 명의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를 다룬다. 말하자면, 기도 샘플을 통해 가장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sup>34</sup> 조병호, *성경을 통한 기도*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25-175.

<sup>35</sup>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381.

<sup>36</sup> *Ibid.*, 382.



방법이다. 성경 속 인물 열 명의 기도 샘플은 아래와 같다.

- ①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와 묵상
- ② 모세의 기도와 묵상
- ③ 한나의 기도와 묵상
- ④ 다윗의 기도와 묵상
- ⑤ 솔로몬의 기도와 묵상
- ⑥ 예레미야의 기도와 묵상
- ⑦ 느헤미야의 기도와 묵상
- ⑧ 예수님의 기도와 묵상1
- ⑨ 예수님의 기도와 묵상2
- ⑩ 예수님의 기도와 묵상3
- ⑪ 시므온의 기도와 묵상
- ⑫ 바울의 기도와 묵상

#### Step 5 -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전도 이야기)

통성경학교의 일곱 번째 스텝은 패밀리 스쿨을 통한 전도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전도는 거의 대부분 교리적으로 접근한다. C.C.C의 4영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통성경학교에서 전도는 성경을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는 이야기로 전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통성경학교에서 전도는 ‘공감’이라는 키워드에서부터 출발한다.<sup>37</sup> 왜냐하면, 결국 전도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해 때문이다. 이런 바탕 위에 통성경학교에서 전도는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나라와 민족 이야기’로 시작해 성경 전체를 5대 제국 이야기로 풀어간다. 이야기 전도의 10가지 주제는 아래와 같다.

- ① 모세 - 나라 세우기
- ② 다윗 - 민족 통일하기
- ③ 사마리아인과 앓수르 제국
- ④ 앓수르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 ⑤ 유대인과 바벨론 제국
- ⑥ 바벨론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 ⑦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페르시아 제국
- ⑧ 유대인과 그리스인과 헬라 제국
- ⑨ 기독교인과 로마 제국
- ⑩ 부모가 자녀에게 -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 통성경학교의 단계별 교육과정

통성경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통성경 기초반,

---

<sup>37</sup> Ibid., 415.

통성경 통합반, 통성경 심화반이 그것이다.<sup>38</sup>

### 통성경 기초반

통성경 기초반은 통성경학교 7 스텝 87개 스토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재는 통성경학교 7 스텝, 통성경길라잡이, 일 년 일독 통독 성경 등 모두 세 종류이다.<sup>39</sup> 교육과정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1안은 30장으로 10주 과정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2안은 단계별(1~5단계)로 44주 과정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표3> 기초반 1안 10주 과정

주차	교육 내용
1주	Pre-Step 1: 그 순간, Pre-Step 2: 성경과 영성
2주	Step 1: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3주	Step 2: 하나님의 마음
4주	Step 3: 성경줄기 - 모세5경
5주	Step 3: 성경줄기 - 왕정 500년
6주	Step 3: 성경줄기 -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7주	Step 3: 성경줄기 - 4복음서
8주	Step 3: 성경줄기 -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9주	Step 4: 성경을 통한 기도
10주	Step 5: 패밀리스쿨 - 이야기 전도

<sup>38</sup>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리플렛, 8.

<sup>39</sup> 교재는 부록의 <표2>를 참고하라.

&lt;표4&gt; 기초반 2안 44주 단계별 과정(1~5단계)

단계	주차	교육 내용
1단계	1~8주	Pre-Step1: 그 순간, Pre-Step2: 성경과 영성, Step1: 7가지질문
2단계	9~12주	Step 2: 하나님의 마음
3단계	13~32주	Step 3: 통성경 길라잡이
4단계	33~37주	Step 4: 성경을 통한 기도
5단계	38~44주	Step 5: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 통성경 통합반 - CBS 바이블칼리지

통합반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통해 개인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를 토대로 강의를 듣는 방식이다.<sup>40</sup> 국내의 손꼽히는 기독교 방송사인 CBS와 제휴하여, CBS 바이블칼리지 과정을 개설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모두 100강으로 구성된 CBS 바이블칼리지 강의를 모두 듣고, 다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듣는 방식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양쪽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다. 교육 기간 역시 상황에 따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통합반의 교재는 CBS 바이블칼리지 메인 교재를 사용한다.

#### 통성경 심화반

심화반(Advanced Course)은 통성경학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과정이다. 물론 통성경의 특성상 처음부터 이 과정을 공부할 수도 있으나, 될 수 있는 대로 기초반을 이수하고 이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심화반은 3권으로 구성된

<sup>40</sup>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리플렛, 8.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북을 교재로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CBS 바이블칼리지 100 강의를 듣고 난 후, 100 강의를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한다. 기간은 20주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 역시 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기간을 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sup>41</sup>

### 통성경학교의 교재

통성경학교의 최고의 강점은 바로 교재에 있다. 통성경학교를 창안한 조병호 박사는 30년 성경 통독 사역의 결과물과 성경연구의 결실을 그대로 교재에 담아냈다. 통성경학교의 교재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통성경학교 7 스텝 교재

통성경학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재로 모두 7권으로 구성된다. 7개의 교과 과정 스텝을 그대로 7권의 책으로 살려냈다. 이 7권의 책은 미니 북(Mini Book) 형태로 되어있고, 쉽고 간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내용이다. 그러나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고, 성경 전체를 통으로 살펴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통성경학교 7 스텝 교재는 다음과 같다.

- ① 그 순간
- ② 성경과 영성
- ③ 7가지 질문
- ④ 마음훈련
- ⑤ 성경 즐기기
- ⑥ 성경을 통한 기도
- ⑦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

<sup>41</sup>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리플렛, 8.

### 통성경 길라잡이

이 책은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쉽고 꼼꼼하게 짚어주기에 기초부터 탄탄하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성경 전체를 마치 숲을 보는 듯하게 구성해 놓은 책으로 성경 전체를 7개의 트랙에 기반을 두어 모두 40개의 줄기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통성경을 위한 훌륭한 입문서이다. 통성경 길라잡이의 가치는 이 책을 읽고 나면 성경 전체의 줄기가 손에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해준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을 꼼꼼하게 반복해서 읽으면 성경 전체를 부분이 아닌 전체로, 개별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본 교재는 책의 서두에 나오는 통성경 오리엔테이션과 부록으로 첨가된 각종 자료가 더없이 유익해서 통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 통성경학교 메인 교재

통성경학교 메인 교재는 두 종류가 있다. 오프라인 통성경학교에서 사용하는 <10주 30강 메인 교재>와 온라인 통성경학교(CBS 바이블칼리지)에서 사용하는 <100강의 교재>가 바로 그것이다. 강의의 개수와 분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인 틀과 주제는 다르지 않다. 즉 언급한 바와 같이 7step을 기반으로 하여 강의를 구성되어 있고, 다만 100강의 경우, 좀 더 세밀하게 강의를 나누어 구성하였다. 메인 교재의 커리큘럼은 아래와 같다.

<표5> 오프라인 통 성경교재 내용 구성 - 10주 30강<sup>42</sup>

주	STEP	강의주제	통독 성경
1주	Pre-Step 그 순간, 성경과 영성	1강: 왜 5세인가? from infancy 2강: 그 순간 이야기 3강: 성경과 영성	1-36일
2주	Step 1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7가지 질문	1강: 7 Question I 2강: 7 Question II 3강: 7 Question III	37-73일
3주	Step 2 하나님 마음: 마음 훈련	1강: 하나님 마음 1-5과 2강: 하나님 마음 6-11과 3강: 하나님 마음 12-20과	74-109일
4주	Step 3 성경 줄기 I: 모세5경	1강: 통성경 길라잡이 1-4과 2강: 통성경 길라잡이 5-8과 3강: 통성경 길라잡이 9-11과	110-146일
5주	Step 3 성경 줄기 II: 왕정 500년	1강: 통성경 길라잡이 12-14과 2강: 통성경 길라잡이 15-17과 3강: 통성경 길라잡이 18-19과	147-182일
6주	Step 3 성경 줄기 II: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1강: 통성경 길라잡이 20-21과 2강: 통성경 길라잡이 22-24과 3강: 통성경 길라잡이 25-26과	183-219일
7주	Step 3 성경 줄기 IV: 4 복음서	1강: 통성경 길라잡이 27과 2강: 통성경 길라잡이 28과 3강: 통성경 길라잡이 29-30과	220-255일
8주	Step 3 성경 줄기 V: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1강: 통성경 길라잡이 31과 2강: 통성경 길라잡이 32-38과 3강: 통성경 길라잡이 39-40과	256-292일
9주	Step 4 성경을 통한 기도	1강: 성경 기도 이야기 I 2강: 성경 기도 이야기 II 3강: 성경 기도 이야기 III	293-328일
10주	Step 5 Family School: 이야기 전도	1강: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 2강: 5대 제국과 유대인 이야기 3강: 예루살렘 성전과 5대 제국	329-365일

<sup>42</sup>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5.

### 온라인 통성경 교재 내용 구성<sup>43</sup>

오프라인 통성경 교재와 온라인 통성경 교재는 큰 틀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온라인 통성경 교재의 경우 다른 것이 있다면, 성경 줄기가 52개라는 점(오프라인 교재는 40개), 성경을 통한 기도에 있어서 온라인 통성경 교재에는 스테반의 기도가 추가된 점이 다르다. 또한, 온라인 통성경 교재에는 스페셜 성경과 5대 제국 부분이 들어있다.

#### <Pre-Step 1 the Moment>

- 1강 왜 모세인가: 디모데와 사두개파 - 큰 그림 가르치기
- 2강 ‘그 순간’ 이야기 1: 성막과 성전
- 3강 ‘그 순간’ 이야기 2: 너희 몸이 성전
- 4강 제사장 나라
- 5강 하나님 나라

#### <Pre-Step 2 성경과 영성>

- 6강 성경은 어떤 책인가?
- 7강 영성이란 무엇인가?

#### <Step 1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 8강 통성경 7개 트랙
- 9강 모세 5경: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 10강 왕정 500년: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 11강 페르시아 7권: 왜! 스톱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
- 12강 중간사 400년: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리 창기파로 분파되었는가?
- 13강 4 복음서: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 14강 사도행전 30년: 왜! 대제사장 세력은 스테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 15강 공동서신 9권: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주다가

---

<sup>43</sup>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6-9.

죽었는가?

<Step 2 하나님 마음>

- 16강 하나님의 마음\_열방을 향한 꿈
- 17강 만나 세대\_신앙 계승
- 18강 천년 모범\_마음과 지혜
- 19강 사랑의 줄 사명의 줄\_절망 앞에 선 희망
- 20강 징계, 희망의 디딤돌\_재건 공동체
- 21장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_기쁨을 위한 탄생
- 22강 한 영혼 사랑\_용서를 향한 열정
- 23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_열리는 제자시대
- 24강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_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 25강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_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Step 3 성경 즐기>

#### 모세 5경

- 26강 성경 66권이 1권으로
- 27강 원역사 (창 1-11장)
- 28강 족장사 : 한 민족과 모든 민족 (창 12-36장)
- 29강 입(入)애굽과 민족 (창 37-50장)
- 30강 출(出)애굽과 제국 (출 1-18장)
- 31강 세계 선교의 꿈-제사장 나라 (출 19-40장)
- 32강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레)
- 33강 만나 세대 (민)
- 34강 만나 학교 졸업 (신)
- 35강 약속의 땅 입성 (수)
- 36강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삿)
- 37강 교육의 성공 사례 (룻)

#### 왕정 500년

- 38강 미스바세대 (삼상 1-7장)
- 39강 왕정의 시작 (삼상 8-31장)
- 40강 세 번의 기름 부음: 다윗의 길 (삼하 1-10장)
- 41강 하나님의 종 다윗 (삼하 11-24장, 왕상 1-2장, 시)
- 42강 솔로몬과 시가서 (왕상 3-11장, 잠, 아, 전, 시)
- 43강 하늘 보석 읍 (읍)
- 44강 남북 분열 200년 (왕상 12-22장, 왕하 1-14장, 암, 호)
- 45강 요나의 기적 (욘)



- 46장 북이스라엘 멸망 (왕하 15-20장, 사 1-39장)
- 47장 베들레헴의 목동들 (사 40-66장, 미)
- 48장 남유다의 멸망 (왕하 21-23장, 습, 합, 나, 율)
- 49장 잠간의 징계 (왕하 24-25장, 램, 애, 읍)
- 50장 역대기 숲 (대상·대하)

#### 페르시아 7권

- 51장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 (겔)
- 52장 제국 변동의 밑그림 (단)
- 53장 성전 재건 (스 1-6장, 학, 습)
- 54장 에스더의 파티 (에)
- 55장 에스라의 권한 (스 7-10장)
- 56장 성벽재건 (느)
- 57장 고백과 침묵 (말)

#### 중간사 400년

- 58장 헬라 제국과 중간사1: 모세 5경의 세계화
- 59장 헬라 제국과 중간사2: 마카비 혁명
- 60장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 61장 로마 제국과 중간사: 헤롯 왕조

#### 4 복음서

- 62장 예수님의 탄생 (마, 막, 눅, 요)
- 63장 공생애 3년: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마, 막, 눅, 요)
- 64장 공생애 3년: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마, 막, 눅, 요)
- 65장 공생애 3년: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마, 막, 눅, 요)
- 66장 마지막 일주일: 산헤드린 재판과 빌라도 재판 (마, 막, 눅, 요)
- 67장 십자가 승리 - 하나님 나라 (마, 막, 눅, 요)

#### 사도행전 30년

- 68장 열리는 제자 시대: 그리스도인 탄생 (행 1-12장)
- 69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행 13-15:35)
- 70장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행 15:36-18:22, 살전·살후, 갈)
- 71장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행 18:23-19장, 고전·고후)
- 72장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행 20-26장, 롬)
- 73장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행 27-28장, 엡, 빌)
- 74장 기독교론과 지적의 편지 (골, 몬)
- 75장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딤후, 딤후)

**공동서신 9권**

- 76장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히, 약, 벤전·벤후, 유)
- 77장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 (요일, 요이, 요삼)
- 78장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 (계)
- 79장 역사순 통독

## &lt;Step 4 성경을 통통한 기도&gt;

- 80장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
- 81장 모세의 기도
- 82장 한나의 기도
- 83장 다윗의 기도
- 84장 솔로몬의 기도
- 85장 예레미야의 기도
- 86장 느헤미야의 기도
- 87장 예수님의 기도1
- 88장 예수님의 기도2
- 89장 시므온과 스테반의 기도
- 90장 바울의 기도

## &lt;Step 5 Family school: 이야기 진도하기&gt;

- 91장 모세-나라 세우기
- 92장 다윗-민족 통일하기
- 93장 사마리아인과 앗수르 제국
- 94장 앗수르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 95장 유대인과 바벨론 제국
- 96장 바벨론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 97장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페르시아 제국
- 98장 유대인과 그리스인과 헬라 제국
- 99장 기독교인과 로마 제국
- 100장 부모가 자녀에게 -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 &lt;SPECIAL 성경과 5대 제국&gt;

- 1장 이집트: 요셉과 파라오
- 2장 앗수르1: 앗수르 제국, 문명과 함께 사라지다
- 3장 앗수르2: 사마리아, 동맹과 함께 사라지다
- 4장 앗수르3: 성경과 앗수르 제국
- 5장 바벨론1: 함무라비와 나부코의 바벨론 제국
- 6장 바벨론2: 바벨론 성 90.16km,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

- 7강 바벨론3: 성경과 바벨론 제국\_유대인의 탄생
- 8강 페르시아1: 소치기 아들(키루스 2세), 페르시아 통일하다
- 9강 페르시아2: 장사꾼 다레이오스, 황금의 제국 만들다
- 10강 페르시아3: 마라톤과 살라미스\_페르시아 전쟁
- 11강 페르시아4: 마고스 축제와 부림절\_에스더 조서 정치
- 12강 페르시아5: 성경과 페르시아 제국\_페르시아 왕의 창고와 조서를 도구로 쓴 사람\_에스라, 느헤미야\_극상품 무화과 열매
- 13강 헬라1: 아테네와 스파르타,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리스의 동맹 이야기
- 14강 헬라2: 알렉산더의 손에 페르시아의 황금이 넘어가다\_다레이오스 3세와 알렉산더(10년 이야기)
- 15강 헬라3: 헬라 제국, 셉투아진트(LXX)와 마카비 혁명
- 16강 헬라4: 헬라 제국과 사두개파
- 17강 로마1: 로마, 제국의 길에 들어서다\_제국의 전쟁
- 18강 로마2: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_제국과 세금
- 19강 로마3: 저 여우에게\_로마 제국의 통치방식
- 20강 로마4: 로마 제국 시민 사도 바울

### 통성경학교 강사

학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이는 통성경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통성경학교는 완성도 높은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통성경학교 강사에게 두 단계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바로 전문 성경 강사를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렉처러 코스(Lecturer Course)와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 가운데, 강사로 활동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 교육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과정 모두 성경통독원 창시자인 조병호 박사를 통해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다.

### 렉처러 코스 소개<sup>44</sup>

렉처러 코스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학문화, 대중화하였고, 통성경의 세계화를 위해 지속해서 연구, 개발, 보급에 힘쓰고 있는 조병호 박사를 통해 교육되는 목회자만을 위한 성경 통독 교육 전문 과정이다. 렉처러 코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으로 패밀리 스쿨을 할 수 있기를 꿈꾸며, 성경 전체를 이야기로 쉽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21세기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 기초 교육의 기반을 닦는 전문 과정을 꿈꾸고 있다. 렉처러 코스는 세 가지 특징을 자랑한다.

첫째, 성경 통독의 전문가, 통박사 조병호가 직접 수준 높은 강의를 전담한다. 2008년 렉처러 코스 1기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2018년 2월 현재 33기) 모든 강의는 통박사 조병호가 전담해왔다. 조병호 박사는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열린 기념 대회에 초청된 전 세계의 19명의 스피커 중 한 사람으로, 이미 그 학문적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sup>45</sup> 통박사 조병호가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은 실제 통성경학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통성경 강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돕는다. 조병호 박사의 수준 높은 강의는 지난 30여 년의 성경 통독 연구의 내용과 경험을 모두 담았기에 통성경학교 강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더 없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렉처러 코스는 통성경 렉처러 코스 자격증을 수여한다. 통성경 렉처러

---

<sup>44</sup> 렉처러 코스 소개는 성경통독원 홈페이지 <http://tongdok.net/> (2018년 2월 1일 확인)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sup>45</sup> 조병호, *통바이블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독일 비텐베르크 대회 강연*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7), 책 표지 그림 참조.

코스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자격 고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통성경 렉처러 코스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이 자격증을 얻기 위해 규정된 출석과 수업 참여, 과제물 제출, 그리고 자격 고사 합격이라는 수준 높은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많은 기독교 교육기관이 특별한 제한 없이 출석만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렉처러 코스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검증된 렉처러를 양성해 내고 있다.

셋째, 렉처러 코스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강력한

네트워킹(Networking)이라 할 수 있다. 통성경 렉처러 코스는 수료와 더불어 끝나는 일회적 모임이 아니라, 수료 후에도 꾸준한 사후 관리로 렉처러들을 관리 감독한다. 즉 수료 후 각종 콘퍼런스와 모임, 재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렉처러의 계속된 성장과 발전을 돕는다. 이런 강력한 네트워킹은 통성경 강사들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게 해주고, 늘 긴장감을 유지하여 강사가 지녀야 할 자질과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제가 되고 있다.

#### 통성경학교 강사 교육프로그램

일단 렉처러 코스를 수료하여 통성경학교 강사 자격을 취득하면, 통성경학교 강사가 될 수 있는 1차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이후 실제로 통성경학교가 열리는 현장에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통성경학교 강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통성경학교가 열리기 약 한 달 전 기준으로 약 2~3번 정도 열리게 된다. 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강사는 해당 교육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숙지할 것이 요청되고, 실제로 강의를 감당하기 전 강의 시연도 해야만 한다. 강의 시연은 직접 교육프로그램 중에 하거나, 자신이 직접 샘플 강의를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준비된 통성경학교 강사는 통성경학교가 개설된 곳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강사는 한 센터에서 보통 1~2회 강의를 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최대 3회까지만 허용된다. 그렇게 강의 횟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양한 강사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통성경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진 강사들의 서로 다른 강의를 통해 강의의 질과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통성경학교 개설과 운영

통성경학교의 개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개교회에서 개교회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성경학교와 특정 지역 내에서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통성경학교 센터가 그것이다. 그리고 통성경학교의 운영은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면 된다.

#### 개교회 통성경학교(Local TBS)

개교회 통성경학교는 적은 인원수로도 개설할 수 있고, 운영과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에서도 소그룹 형태로 통성경학교를 열어 교육할 수 있으므로 비전교회, 소규모 교회에 적합한 방식이다. 물론 규모가 큰 교회도 얼마든지 개교회만을 위한 독자적 통성경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개교회 통성경학교는 여러 명의 강사가 강의하기 어렵고, 통상 1명의 강사(대부분 과정을 이수한 담임 교역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전담한다. 물론 여력이 되는 규모가 큰 교회의 경우 여러 명의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개교회 통성경학교는 수강료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개교회

통성경학교는 학부모를 위한 통성경학교, 교사를 위한 통성경학교, 임원을 위한 통성경학교, 청년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성경학교 등 대상을 다채롭게 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규모가 크지 않게 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개교회에서 진행하는 만큼, 여러 과정을 동시에 개설해도 되고, 강의 일정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닐 경우 외부 강사 수혈이 힘들어, 강의를 전담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통상 개교회 통성경학교의 경우 강의를 전담하는 교역자가 운영도 겸하게 되는데, 운영을 담당해줄 섬김이가 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지역 센터 통성경학교(TBS Center)

최소 두 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연합으로 통성경학교를 개설할 경우 지역 센터로 운영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서울 마포 지역을 대상으로 <통성경학교 서울 마포 센터>를 열거나, 강화와 김포 권역을 묶어 <통성경학교 경기 김포강화 센터>와 같이 개설하는 경우다. 센터의 경우 통성경학교를 열 수 있는 특정 교회를 선택해서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성경학교 센터는 센터를 책임지는 센터장과 센터장을 돕는 센터 지기가 구성되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 센터 통성경학교는 학생 모집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 매체를 이용해 학생을 모집하는데, 지역 센터의 경우 최소 30명 이상 50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너무 적으면 센터의 의미가 약화되고, 너무 많으면 관리가 어려워 효율적인 센터운영과 강의 진행이 어렵다. 센터 통성경학교의 강의는 센터장과 센터 지기가 각각 두 강의를 맡고, 나머지 강의는 외부 강사에게 맡기는 방식을 택한다. 강사 배정과

강의 배정은 센터장과 센터 지기가 협의해서 정한다. 단, 앞서 언급한 대로 강사는 자격을 갖추고, 충분히 교육을 받아 검증된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 센터 통성경학교의 경우 외부 강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강사 선정에 무척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적당한 강의실, 강의환경, 간식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대체로 센터 통성경학교의 경우 개교회 통성경학교보다 수강료가 조금 더 비싸다. 왜냐하면, 외부 강사 초빙 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통성경학교는 책임 있고, 수준 높은 강의를 위해 모든 외부 강사에게 일정 정도의 강사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센터 통성경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학사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제 체크, 출결관리 등은 물론, 많은 학생이 결석했을 경우 보충 강의 계획도 세워야 한다. 또한, 지역 센터의 경우 날짜와 시간 계획을 잘 세워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통성경학교의 실제 운영(오리엔테이션, 과제, 수료식, 시상 등)

통성경학교가 개설되어 학생 모집까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미리 이름표와 출석부를 만들어 놓는다. 될 수 있는 대로 교재는 개강 1주 전에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첫 주 수업 시작 전에 약 15분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통성경학교의 이해를 돕는다. 이때 학사관리 전반(출결 관리, 과제, 수료, 시상 등)에 대해 설명한다. 과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과제는 예습 과제와 복습 과제로 나뉘는데, 매주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 점검은 빠짐없이 한다. 통성경학교에 있어서 강의 못지않게 과제가 중요한데, 과제 충실도에 따라 통성경학교의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업은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고, 때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센터 통성경학교의 경우 적어도 1~2주 전부터 외부 강사에게 미리 연락하여



강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0주 기준으로 강의는 최소 7회 이상 참여해야 하며, 과제도 최소 70~80% 정도 수행할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종강을 앞두고 수료식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출결 결과와 과제를 잘 살펴 수료 대상을 선정하고, 수료증도 미리 준비해 둔다. 수료자를 대상으로 서약서를 미리 나누어 주어 제출하게 함으로써, 수료와 동시에 배운 대로 성경을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수료식 때 우수자 2~3명을 선정하여 시상 하도록 하고, 미리 한두 명을 선정하여 소감을 발표하는 등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종강하면 더욱 좋다. 센터의 경우 수료자들을 잘 관리하여 이후에 다른 과정이 개설될 때, 우선하여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면 좋다.

## 제 IV 장

### 통성경학교의 기능

이제 통성경학교가 개교회에서 목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필자는 본 논문을 쓰기 전 모두 네 번에 걸쳐 통성경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다. 한 번은 통성경학교 센터의 센터 지기로 섬겼고, 세 번은 통성경학교의 센터장으로 섬겼다. 그리고 네 번의 통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강사로 여러 센터에서 강의를 맡아 진행했음을 밝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필자가 논하는 통성경학교의 기능에 관한 주장은 결코 실체 없는 공허한 이론이 아니며,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을 거친 결과임을 또한 밝혀 둔다. 필자는 여기서 통성경학교의 기능을 모두 네 가지 차원에서 논할 것이다.

#### 효과적인 성경 통독

필자가 통성경을 배우고, 또 통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난 후 가장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과를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성경 통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성경 통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통성경학교가 어떻게 효과적인 성경 통독에 기여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성경 통독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다.<sup>1</sup>

성경 통독이란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예컨대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이나 펄 벅(Pearl S. Buck)의 ‘대지’ 같은 소설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용 파악이 쉽고, 전체적인 흐름에 방해 받지 않고 소설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제법 양이 많은 대하소설의 경우, 각 권이 주는 나름의 재미와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설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아야 그 책이 주는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성경 한 구절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 한 장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 성경의 각 권이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있다. 따라서 매일 몇 절씩 혹은 몇 장씩 나누어 묵상하는 방법으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찾기 어렵다. 또한, 부분적으로 말씀을 접하게 되면, 성경을 편식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이를테면 시편 23편이 은혜롭다고 그것만 매일 보고, 다른 시편을 건너뛴다면 그것은 바른 성경 읽기가 절대 될 수 없고, 결국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게 된다.

원래 ‘통독’은 예로부터 배움과 지식을 연구함에 있어서 동양권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던 방법론이다. 이를테면 천자문이나 유교의 경전을 읽을 때 소리 내어 읽던 방법인데, 이렇게 책을 읽어 가면 읽는 사람 자신도 모르게 통찰력과 직관력이 생기는 일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책을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반복 통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리(文理)가 트이는 이치라 하겠다. 이문장의 말을 들어보자.

---

<sup>1</sup>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16.

한국인에게는 한국인 나름의 독서법이 있다. 특히 경전을 읽는 일에는 더욱 독특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독서백편의자현’ (讀書百遍義自見)으로 요약된다. 글을 반복해서 읽으면 이전에 통하지 않던 뜻이 통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중략>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은 반복된 독서를 통해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뜻을 잡고, 그러한 붙잡음을 깨달음이라고 여겼다.<sup>2</sup>

이처럼 전체를 통으로 반복하여 읽는 것은 텍스트 전체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도 이처럼 읽되, 부분이 아닌 전체로, 즉 66권 전체를 통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읽는 성경 통독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직관이 생기게 된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성경 통독을 할 경우, 하루에 여러 구절씩 묵상하는 방법으로 몇 년에 걸쳐 성경을 1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경의 진수를 맛보게 될 것이다.

역사 순으로 재배열해서 읽는 것이다.<sup>3</sup>

성경 통독의 두 번째 요소는 성경 66권을 역사 순서대로 읽는 것이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편제는 역사 순이 아닌, 장르에 따른 전통적인 구분을 따른다. 구약의 경우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Septuaginta, LXX, 외경 포함)과 구약의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sup>4</sup> 그리하여 구약의 경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순서를

<sup>2</sup> 이문장, *한국인을 위한 성경연구*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4), 80.

<sup>3</sup>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16.

<sup>4</sup>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경 입문 I*, 차준희·채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2-23.

따르고 있고, 신약의 경우도 복음서, 역사서(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요한계시록)의 순서로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만약 이 같은 순서를 따라 성경을 읽으면 전체적인 흐름이 전혀 연결되지 않게 된다. 이는 올바른 성경 읽기를 방해하고, 내용 파악은 물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큰 방해가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경의 각 권이 가진 저마다의 역사적인 순차성을 고려하여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해서 읽으면 가독력이 크게 향상되리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국내에서 역사 순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은 두 종류가 있다. 먼저 조병호 박사가 편찬한 <일년일독 통독성경><sup>5</sup>이다. 이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인정한 국내 유일의 역사 순 성경으로 성경을 통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크게 유익하다. <일년일독 통독성경>은 1년(365일)에 성경 전체를 일독할 수 있게 성경을 나누고, 그 나뉜 부분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 하나는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간한 <연대기 성경, The Chronological Bible>이다.<sup>6</sup> 이 성경의 연대기적 순서는 The Narrated Bible in Chronological Order를 따랐는데, 라가드 스미스(F. LaGard Smith) 목사가 집필한 단락 개요를 실었다. 이 성경은 구약을 11개의 파트로, 신약을 2개의 파트로 나누었으며, 단락마다 제목이 달려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성경들을 도구로 삼아 역사 순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력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계를 경영하시는 이야기를 역사 순으로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훨씬 더 생생하게

---

<sup>5</sup> 조병호 박사가 편찬한 <일년일독 통독성경>은 2008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독자에게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훌륭한 성경 통독 도구이다.

<sup>6</sup> The Narrated Bible (Oregon: Harvest House Publishers, 1984). *연대기 성경*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9), 3.

느낄 수 있다.

###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sup>7</sup>

성경 통독의 세 번째 요소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따라서 성경을 통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다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을 읽은 것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sup>8</sup> 따라서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 구절, 문장, 문단, 그리고 66권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부연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 표현이 직접적, 간접적, 역설적으로 나타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도 가감 없이 표현되어 있다.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꿈과 눈물, 지혜와 노래, 용기와 하나 됨, 은유와 겸손, 기다림과 인내 등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sup>9</sup> 따라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 읽기에 실패한다면 성경 읽기에 실패한 것이나 진배없다. 이는 마치 군대에 간 아들이 부모의 편지를 받아 읽을 때, 부모님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고 언제 면회를 것인지에만 관심하는 것과 같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단순히 지식만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마음 읽기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과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의 마음 읽기에 실패하여 결국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sup>7</sup>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17.

<sup>8</sup> 딤후 3:16

<sup>9</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북1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7), 99.

오해는 그것을 하는 것보다 푸는 것이 몇 배는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성경을 잘못 읽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그보다 몇 백 배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성경학교는 효과적인 성경 통독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필자는 앞에서 성경 통독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경 통독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고, 역사 순으로 재배열해서 읽는 것이며,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성경을 통독하기만 하면 성경 통독을 할 수 있게 될까? 물론 상기한 바대로 3가지 요소를 철저히 지키면서 성경을 읽으면 바른 성경 통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만만한 대상이 아니다. 성경은 역사, 지리, 문화, 정치, 전쟁, 경제, 종교, 사회, 도덕과 윤리, 자연 등 수많은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 통독의 성과가 미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통성경학교를 통해 성경을 잘 배우면 성경 통독이 훨씬 쉬워지게 된다. 이는 이미 통성경학교를 경험한 사람들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100번 넘게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통성경학교에서 공부하고 난 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월등하게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만나 보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성경 통독을 하는 데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성경 통독을 강조해왔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또 성경 통독을 돕는 많은 책과 도구들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듣는 오디오 성경이나, 성경 통독 보조 교재, 각종

성경 통독 세미나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데도 여전히 성경 통독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성경에 대해 전이해(前理解)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성경을 반복해서 통독을 많이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충분히 공부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에 견주어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통성경학교를 통해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성경 통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sup>10</sup>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의 수료자 심층 인터뷰를 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패밀리 스쿨 -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적 대안

#### 교회의 위기 그 실체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교육의 위기이다. 공교육의 위기는 곧 학교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같은 교육의 위기는 교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의 위기의 증표로 외적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든다. 실제로 몇몇 부흥하는 교회들의 경우도 수평 이동이 부흥의 요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어떤 대안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사실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비롯해 주변의 제법 큰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학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굳이 인구의 자연감소를 하나의 원인으로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는 정말 점점 더

---

<sup>10</sup>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하고 확실한 논증은 V번 항목 <통성경학교 수료자 심층 인터뷰>를 참고하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마다 이러한 위기를 탈출해 보고자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지만, 힘에 부쳐 보인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위기 탈출에 도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패밀리 스쿨의 기원과 시작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대안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성경에 답이 있다. 바로 패밀리 스쿨이다. 조병호는 패밀리 스쿨의 기원을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20세 이하 청소년들을 가르친 것에서 찾는다. 조병호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보자.

“모세가 드디어 60만 명의 제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놓고 로스쿨 졸업식 축사를 했습니다. 그 축사는 지난 40년의 교육을 뛰어넘는 또 다른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서 <Family School>을 ‘OPEN’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는 약 23,000개의 가정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23,000개의 <Family School>을 열라고 했습니다.”<sup>11</sup>

유월절에 살아남은 히브리 장자들의 가정 23,000개에서 패밀리스쿨이 열렸다는 조병호의 통찰은 참으로 놀랍다. 더구나 조병호는 패밀리 스쿨의 구체적인 실체를 성경 안에서 찾아내는데,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조병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패밀리스쿨은 5권의 이야기 책 곧 모세5경을 교재로 사용하여,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 식으로 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결국,

---

<sup>11</sup>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37.

패밀리 스쿨의 교사인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통해 만 5세부터 가르친다는 것이다.<sup>12</sup> 왜냐하면, 이야기는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기 때문이다.<sup>13</sup> 또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시기는 ‘항상’이다. 특히 신명기 본문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시간까지 규정하고 있다. 곧 “집에 앉았을 때(when you sit at home), 길을 갈 때(when you walk along the road), 누워있을 때(when you lie down), 일어날 때(when you get up).” 예든지 부모는 자녀에게 이야기로 가르쳐야 한다.<sup>14</sup> 이 정도의 열정으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통해 패밀리 스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패밀리 스쿨을 위한 통성경학교

청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선포했다.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sup>15</sup>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윗은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단 한 번의 전쟁 경험도 없고, 양치기로서 살아온 그가, 심지어 어린 10대의 청소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의 아버지 이새의 패밀리 스쿨 때문이다.<sup>16</sup>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배웠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

<sup>12</sup> Ibid., 38.

<sup>13</sup> 신 6:7과 신 11:19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강론하라’라고 명령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바로 talk about(NRSV, NIV 등)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야 함이 강조된다.

<sup>14</sup> 신 6:7 개역 개정 성경 및 NIV 본문

<sup>15</sup> 삼상 17:47

<sup>16</sup>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47.

말을, 그것도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의 현장에서, 또한 전쟁의 전문가인 골리앗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패밀리 스쿨의 학습 효과는 이처럼 한 가정과 전투의 현장을 넘어, 이스라엘 나라를 춤추게 했다.<sup>17</sup>

350년 동안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홀로된 이방 여인 룯에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sup>18</sup> 보아스는 룯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한다. 이미 밭 모퉁이 일부를 내주고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것이다. 제사장 나라의 기초가 무너진 사사 시대에 제사장 나라의 법을 알고 있고, 또 지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sup>19</sup> 어디 그뿐인가? 자기 소년들에게 방어력이 전혀 없는 이방 여인 룯을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조치까지 취해 두었다. 심지어 목이 마르면 언제든 자기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권한다. 도대체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보아스를 그저 착한 사람 정도로 치부하기엔 아쉬움이 크다.

이어지는 그의 말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sup>20</sup> 그의 입에서

---

<sup>17</sup>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한지라(삼상 18:7)

<sup>18</sup> 룯 2:8-9 개역 개정 성경

<sup>19</sup> 레 19:9-10을 참고하라.

<sup>20</sup> 룯 2:12 개역 개정 성경

‘여호와’ 라는 말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는 말까지 나온다. 배경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지금이 사사 시대인가 의아할 정도다. 보아스의 이런 말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역시 답은 패밀리 스쿨이다. 보아스 가문의 패밀리 스쿨이 완벽했다. 보아스는 그의 아버지 살몬과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제대로 된 패밀리 스쿨 학습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조병호는 보아스 가문의 패밀리 스쿨 성공 사례를 최소 네 가지의 근거를 들어 확증한다. “첫째, 제사장 나라의 법과 절차를 정확히 알았고, 둘째, 희년법으로 나오미와 롯을 살렸으며, 셋째, 계대결혼법을 알아 그 절차를 존중했으며, 넷째, 레위기에서 배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준수했다” 라는 것이다.<sup>21</sup> 물론 이 외에도 패밀리 스쿨의 성공 사례는 성경 안에 무수히 많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삭, 청소년 시절 애굽에 팔렸지만 월등한 실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 만들기의 초석을 놓은 요셉, 애굽 왕자 모세, 20세에 왕이 되어 스스로 ‘좋은 작은 아이’ 라 고백한 솔로몬, 20세에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 예수의 들러리로 사는 삶을 기쁘게 여겼던 세례요한, 열두 살 때 랍비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던 예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 즉각 메시아임을 알아본 바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테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패밀리 스쿨의 혜택을 받아 월등한 성과를 낸 사람들이었다.<sup>22</sup>

이런 성경 속 이야기는 고스란히 우리의 현실에서도 가능함을 역설해 준다. 문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패밀리 스쿨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낮은 이해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패밀리 스쿨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sup>21</sup> 조병호,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북2*(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7), 109.

<sup>22</sup> *Ibid.*, 118.

현실이 패밀리 스쿨을 위한 통성경학교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준다. 실제로 2015년 9월 제1기 통성경학교(Tong Bible School)가 전국에서 약 20여 개 센터로부터 출발하여 5기까지를 마치고, 2018년 현재 6기 통성경학교를 준비 중이다. 온라인 CBS 통성경학교까지 합치면, 통성경학교를 통해 배출된 예비 패밀리 스쿨 교사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다. 또한, 여러 교회에서 통성경학교의 본보기가 될 만한 좋은 성공 사례들도 속속 공유되고 있다. 무엇보다 필자는 필자가 속한 교회(강화 베다니교회)에서의 통성경학교를 통한 패밀리 스쿨의 가능성을 실제로 경험하였다. 본 교회에서 이미 4회에 걸쳐 통성경학교(경기 김포강화센터)를 열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필자 자신의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을 하고 있으며, 수료자 중에서 패밀리 스쿨을 하는 가정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성경학교는 패밀리 스쿨을 가능하게 하는 최선의 대안이라 확신한다.

## 교회교육 프로그램

### 교사교육 프로그램

통성경학교를 경험하면서 새삼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좋은 통성경학교 강사가 통성경학교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통성경학교 제1기부터 2017년 제5기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통성경학교에서 강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많은 피드백이 있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강사의 자질이 좋을수록 통성경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사실이다. 통성경학교의 특성상 거의 매주 강사가 바뀌다 보니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의 강사에 대한 비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를 통해 중요한

통찰을 하나 얻었다. 교회학교에서의 교사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잘 준비되고, 많이 학습된 교회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잘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사들을 훈련하고 양육시킬 것인가? 필자는 통성경학교가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실제로 필자가 속한 교회에서 필자는 매 주일 교회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통성경학교를 자체 운영하고 있다. 담당 교역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의 교사를 상대로 매주 통성경학교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다행히 한 명을 제외한 교사 대부분이 이미 통성경학교를 수료했기에 심화반 운영이 전혀 어렵지 않다. 필자가 속한 교회는 그동안 제대로 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아 큰 고민이었다. 여러 가지 단기 세미나 혹은 일회적 프로그램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 통성경학교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제격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통성경학교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규모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0명 이상의 대그룹도, 2~30명의 중그룹도, 그리고 10명 이하의 소그룹도 통성경학교를 운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무엇보다 통성경학교가 교사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장 좋은 이유는 교사들의 역할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성경 교육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강화 베다니교회에서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통성경학교 경험은 통성경학교가 교사교육의 대안 프로그램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 주일학교 교육프로그램

필자는 앞에서 통성경학교가 교사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논증했다. 그런데 통성경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서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현재 대부분의 교회학교 아이들(아동부와 청소년)의 경우 모태 신앙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기독교인인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속한 교회의 경우 어린이 약 40여 명 중 거의 90%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교회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성과가 더욱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을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의 연장으로 교회에서 교사가 다시 성경을 가르치면 배우는 아이들이 이원(二元)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둘째로, 통성경학교 교재가 교회학교 교육에 제격이라는 것이다. 통성경학교 교재는 앞서 살펴본 대로 다양한 데다,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테면, 7Step 7권의 교재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정도만 되어도 이해할 수 있다. 중고등부 혹은 청년들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통성경학교 교재의 경우 책마다 혹은 장마다 나누어서 교육하기에 좋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이 많거나 복잡할 경우 여러 번 나누어 교육해도 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교재의 활용 폭이 아주 크다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그 활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성경통독원에서 계속해서 좋은 책들과 교재가 출간되고 있어서 더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sup>23</sup> 결국, 통성경학교는 그 체계와 교재 그리고 운영 방법의 탄력성 때문에 개교회 교회학교에서 얼마든지 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여름성경학교나

---

<sup>23</sup> 조병호가 원장으로 있는 성경통독원은 한국에서의 성경 통독과 통성경학교가 가능하게 한 산실이다. 자체 운영 중인 도서출판 통독원은 수많은 성경 통독 전문교재와 교회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성경 교육 도서들이 있다. <http://tongbooks.com/shop/main/index.php> (2018년 2월 1일 확인)는 자체 운영 중인 온라인 도서 물을 참고하라.

수련회와 같은 단기 프로그램으로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통성경학교를 진행한 적도 있고, 2박 3일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성경학교를 약간 변형하여 운용한 적도 있다. 단기간의 프로그램이었지만 어느 프로그램 못지않은 성과와 만족감이 있었다.

### 제자 훈련 또는 임원교육 프로그램

거의 모든 교회에서 꼭 한 번쯤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 또는 임원(중직자) 교육프로그램일 것이다. 국제 제자 훈련원의 제자 훈련과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모든 목회자는 성도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항상 고민한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통성경학교는 제자 훈련 또는 임원교육 프로그램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통성경학교가 목회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는 누구나 성경 교육에 대해 목마름과 필요성을 절감하며 사역한다. 그런 점에서 통성경학교는 가장 편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자 훈련 혹은 임원 훈련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통성경학교는 별도의 준비가 그리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 교육을 하고자 하는 담임목사나 전담 교역자가 준비만 잘 하면<sup>24</sup>, 결코, 운용이 어렵지 않다. 교재 확보와 수강생 모집만 되면, 언제든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통성경학교는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도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통성경학교는

---

<sup>24</sup> 여기서 준비란 렉처리코스 혹은 강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칠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통성경학교는 강사의 철저한 준비가 거의 절대적이다.



기초반, 통합반, 심화반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교육하기에 적절하다.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필자가 속한 교회에서 아직은 임원교육 프로그램을 통성경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그 가능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간 본 교회에서 열린 통성경학교에 등록하여 공부한 수강생들의 거의 70~80%가 임원(중직자)임을 참작하면, 그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목회자를 위한 통설교

목회자에게 있어서 많은 사역의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당연히 설교이다.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일주일에 최소 10회 이상을 설교하는 것은 기본이다. 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2회 설교를 한다. 새벽기도회 6회, 수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1회, 목요일 속회 인도 1회, 주일에 3회 등 최소 12회다. 당연히 설교의 부담은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부담은 결국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설교의 부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설교의 부실은 성경 이해와 연구의 부실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목회자가 설교를 충실히 준비하여, 좋은 설교를 하려면 성경연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통성경학교는 목회자의 설교를 돕고, 특히 통설교를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통성경학교는 평신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훌륭한 성경 교육의 장(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통성경학교에 등록한 사람들의 경우 약 10~20% 정도는

목회자가 그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목회자의 경우 통성경학교를 통해 성경을 배우고, 이후 렉처러 코스를 통해 전문 강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과정을 밟은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중에 통성경을 통해 설교가 풍성해졌다는 것이다. 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설교 준비가 쉬워지고, 설교가 재미있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수확은 설교에 있어서 예화주의와 요절주의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병호는 예화주의를 성경 본문보다 예화에 더 집중하여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이는 마치 불량식품을 먹게 하는 것에 비유된다. 그런데 이런 예화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주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sup>25</sup> 또한, 요절주의는 모든 성경에 집중하지 않고 특정한 요절 몇 개에만 집착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병호는 이것을 성경 말씀을 편식하는 것에 비유한다.<sup>26</sup> 이 역시 성도들에게 모든 성경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이다.

그러나 통성경학교를 통해 통성경을 알게 되면 이런 예화주의와 요절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통성경 자체가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게 하고, 시간·공간·인간, 개인·가정·나라,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설교를 통성경에 기반을 둔 통설교를 가능케 하는 유익이 따른다. 통설교는 통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설교를 말한다. 통설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화주의를 극복하고, 요절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 통성경과 통설교 자체가 이미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론이고, 성경과 설교의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통성경학교를 통해 통성경을 배우게 되면 성경

---

<sup>25</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8-15.

<sup>26</sup> *Ibid.*, 18-24.

안에서 성경의 예화가 넘쳐난다.<sup>27</sup> 요절의 편협함을 넘어, 성경 66권을 넘나드는 회열을 맛보게 된다. 이 논문을 쓰고 있는 필자 역시 통성경을 통해 통설교를 하고 있으며,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진 지 오래다.

무엇보다 통성경을 하게 되면 성경을 늘 가까이하게 되고, 성경을 참 많이 읽게 된다.<sup>28</sup> 이는 자연스럽게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성경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준다. 목회자가 말로만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경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사실 설교 준비는 특정한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성경을 가까이하므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런데 통성경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결국, 통성경학교는 개 교회 안에서 목회적인 영역뿐 아니라, 목회자 개인의 경건과 사역, 특히 설교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sup>27</sup> 통성경학교 교재를 보라. 오직 성경 이야기만 가득한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성경 지식을 너무나 풍성하게 맛볼 수 있다.

<sup>28</sup> 통성경은 1년에 최소 10번 읽는 것이 기본이다.

## 제 V 장

### 통성경학교 수료자 심층 인터뷰

#### 인터뷰 개요

통성경학교 수료자 심층 인터뷰는 필자가 시무하는 강화 베다니교회에서 진행한 ‘통성경학교 1차(2016년), 2차(2017년)’ 수료자 중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10명을 선정하여 사전 질문지를 보냈다. 그리고 응답지를 성실하게 작성한 사람 중에서 성별과 나이를 고려하여 5명을 선별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선별된 5명의 구성원은 연령대로 볼 때 50대부터 10대까지 각 1명씩,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 2명과 여성 3명, 이렇게 나이와 성별을 균형 있게 선택하여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거주 지역은, 4명은 본 교회가 위치한 강화군 강화읍, 그리고 미혼의 20대 여성은 강화군 길상면이다. 인터뷰 방법은 먼저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여 제출하게 했다. 그리고 난 후,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일대일 대화를 진행하였다. 참고로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존중하여 성별과 연령대를 제외한 이름과 나이는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시기는 논문이 거의 마감되어 가던 시기인 2018년 2월 27일, 28일 양일간 진행하였다.

#### <인터뷰 사전 질문지>

- ① 통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② 통성경학교에 참여하기 전에는 평소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 ③ 통성경학교 강의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나 이해가 되었습니까? 100%를 기준으로 이해도를 퍼센트로 수치화한다면 몇 퍼센트나 됩니까?

- ④ 통성경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통성경학교 강사에 대해 평가한다면? 예를 들어, ‘강의방법, 성실성, 전달력, 교재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 ⑤ 통성경학교의 교재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 ⑥ 통성경학교의 운영(수업시간, 수업료, 간식, 학사관리 등)에 대한 평가는?
- ⑦ 통성경학교 과정 중 제출한 과제에 대해 평가한다면?
- ⑧ 통성경학교 수료 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자세, 각오, 계획 등)
- ⑨ 당신이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다면 통성경학교 수료 후 당신의 자녀에게 패밀리 스쿨을 할 계획입니까? 혹 미혼이라면 이후에 결혼하고 난 후 자녀가 생기면 패밀리 스쿨을 할 계획입니까?
- ⑩ 통성경학교 수료 후 당신의 성경 읽기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 심층 인터뷰 사례

#### 사례 1. (50대, 여성)

이 여성은 50대 중반의 권사로서 교회에서 성가대와 찬양단 멤버로 활동하는 분이다. 장성한 3남매를 두었고, 전업주부다. 이분은 기초반과 심화반을 모두 수료했다. 이분이 통성경학교를 하게 된 계기는 담임 목사의 권유였지만, 이전부터 이런 공부를 몹시 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 이분은 통성경학교를 수료하기 전, 1년에 1회 성경을 통독했다고 한다. 통성경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이었다. 우선 강의 이해는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쉽게 이해했는데, 나이 탓인지 쉽게 잊히는 것이 문제라며 아쉬워했다. 통성경학교의 강사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말에 1차 때에는 주별로 서로 다른 강사들이 와서 다양한 개성과 색깔로 강의해서 좋았다고 한다. 2차 때에는 담임목사와 함께해서 익숙하고 편해서 이해력이 더욱 좋았다고 한다. 성경학교 기간 중 과제에 대해서는 나름으로 열심히 해서 좋기는 했지만(2차 때에는 별도의 과제가 없었음), 10주 내내 많은 부담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교재에 대해서는 1차 때 기초반의 경우 쉽고 편했으나, 2차 심화반 교재의

경우 약간 난이도가 있어 조금은 어려웠다고 한다. 통성경학교 수료 후에 달라진 것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의 줄거리가 정리되어 너무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성경을 읽으니 성경을 보는 것이 쉽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이전보다 더욱 많이 하게 되었다는 고백도 잊지 않았다. 다만 이미 나이가 들어 자녀들을 대상으로 패밀리 스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크게 아쉽다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통성경학교에서 공부하도록 권면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통성경학교를 수료한 후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수월해졌는데, 읽음에 있어서 역사 순으로 읽는 것이 참 쉽고 좋다고 말했다.

#### 사례 2. (40대, 남성)

40대 후반의 이 남성은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이다. 이분은 같은 지방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평소 성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있던 차에 필자의 권유로 통성경학교에 등록했다고 한다. 이분의 통성경학교에 참여하기 전의 성경 읽기는 26년 전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약 10여 회 정도 통독을 했다고 한다. 이분은 많은 양보다 정독에 주안점을 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매일 읽는다고 했다. 목회자라 그런지 아무래도 강의에 대한 이해도는 평신도들보다 매우 높았다. 강사들에 대한 평가에서는 능숙한 강사들의 명쾌한 강의도 있었지만, 몇몇 강사의 설교식 강의는 조금 아쉬웠다고 평했다. 그리고 교재에 대해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 비해 요점 정리가 잘 되어있어

좋았고, 교재의 저자인 조병호 박사의 통찰력이 매우 돋보였다고 평했다. 다만 교재비용은 조금 부담스러웠다고 솔직하게 평했다. 통성경학교의 운영에 관해 한마디를 부탁했더니 등록부터 수료까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있었다고 평했으며, 수업료 부분에 있어서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여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참고로, 본 교회에서 열린 통성경학교 경기 김포·강화 센터는 비전교회 목회자와 사모들에게 50% 장학혜택을 주었다(등록비 20만 원 중 10만 원 혜택). 통성경학교 수료 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말해 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대답했다. “가능한 이른 시간 안에 성경 66권 전체의 그림이 모든 성도의 머릿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통독 방법의 도입과 이에 따른 목상과 실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되어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경우 통성경학교 수료 후 매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성경을 만들어 주고 집에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시간을 자기보다 더 기다리는 것을 볼 때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패밀리 스쿨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통성경학교 수료 후 성경 전체의 그림을 알고 성경을 읽는 느낌이 참 좋다고 했다. 무엇보다 시대와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도 성경을 쉽고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습득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 사례 3. (30대, 여성)

이 성도는 30대 여성으로 세 딸을 둔 전업주부다.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 성도가 통성경학교에 등록하게 된 경위 역시 담임목사의 권유였다고 한다. 그리고 솔직히 성경은 규칙적으로 읽지 못했다고 한다. 강의의 이해도에서는 약 80~90%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강사 대부분이 강의를 대체로 다 잘했지만 자기 교회 담임목사의 설명이 가장 쉬웠다고 한다. 필자가 인터뷰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기분 좋았고, 감사했다. 교재에 대해서는 요점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다시 보아도 생각이 잘 나고, 그래서 학습효과가 좋았다고 평했다. 통성경 운영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고, 특히 간식이 너무 좋아서 매우 흡족했다고 한다. 의외로 이번 인터뷰에 응답한 사람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과제에 있어서는 성경 쓰기는 재미있었지만, 독후감은 좀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이 성도는 통성경학교를 수료한 후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된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특히 통성경학교를 수료한 후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정말 배우기를 잘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말씀이 결론되어야 한다는 말을 이해했다고 한다.

#### 사례 4. (20대, 여성)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자 청년이다. 아직 미혼이고, 교회에서는 아동부 교사를 맡고 있다. 이 청년의 특이점은 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적응을 잘 하고 있고, 봉사도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 이 청년 역시 대부분 청년이 그렇듯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늘 작심삼일로 끝났다고 한다. 통성경학교 기간 큰 어려움은 없었고, 다만 교재가 조금 양이 많아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그러나 통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어른스러운 평가도 잊지 않았다. 특히 통성경학교의 강사에 대해서는 쉽게 전달하는 분과 어렵게 전달하는 분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고 평했다. 그리고 수업시간이 토요일인 것은 조금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아마도 청년들에게는 토요일이 황금 시간대인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과제가 있어서 부담스러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고 한다. 통성경학교를 마친 후의 소감을 묻자, 성경을 자세히 알고 싶고,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여 자녀를 낳기 전 미리 준비하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 패밀리 스쿨을 실현하고 싶다는 다부진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청년은 통성경학교 후에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성경을 역사 순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

#### 사례 5 (10대, 남성)

이 학생은 통성경학교에 등록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필자의 장남이기도 한 이 학생은 아버지의 권유도 권유였지만, 본인 자신의 의지로 등록했다고 강조했다. 이 학생은 매일 10장 정도 성경을 읽어 1년에 약 3독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패밀리 스쿨을 하는 필자의 가정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강의의 이해도(理解度)를 물었을 때 약 7~80%는 이해가 되었다고 한다. 강사에 대해서는 몇몇 분의 경우 조금은 깔끔하지 못했다고 평했는데, TBS 전체로 보면 전달력은 약 60% 정도로 박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그런데도 열심히 강의하고자 하는 모습과 교재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교재는 알기 쉽게 정리되어 좋았다고 한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 그런지 조목조목 평가를 냉정하게 잘 했다. 특히 가족이 함께 등록할 경우 수강료

할인을 해준 것과 간식이 아주 좋았다고 평했다. 과제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운영에 관한 나름의 조언도 덧붙였다. 통성경학교 후에 달라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성경에 대한 태도, 학업에 대한 마음가짐’이 더욱 진지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통성경학교 수료 후 성경 읽기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그림이 잡혀서 성경 읽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으며, 성경에 좀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자세가 달라진 것이 가장 소중한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 결과 분석

5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사전 질문에 응해주신 10명의 성도와 끝까지 인터뷰에 응해준 5명의 성도에게 감사의 표시는 바이다. 두 번에 걸친 통성경학교를 통해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 통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의 상황, 둘째, 통성경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강사, 강의, 교재 등) 셋째, 통성경학교 후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세 가지 차원의 결과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통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된 계기이다. 5명 모두 담임목사의 권유로 하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두 번에 걸쳐 통성경학교를 마친 후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개개인의 열망 혹은 의지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성도가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권유하거나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지로 성경을 공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는 담임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교회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담임목사가 통성경학교에 대해 적극성을 띠면 참여율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담임목사가 통성경학교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고, 성도들에게 열정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면 통성경학교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실제로 필자의 교회에서 계속하여 통성경학교를 개설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떤 사역이든 리더의 확신과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통성경학교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개교회에서의 통성경학교의 성패는 담임 목회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성경학교에 참여하기 전, 성도들의 성경 읽기의 현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5명 모두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그 편차는 대단히 컸다. 1명은 1년에 3독, 1명은 1독, 나머지 3명은 거의 규칙적인 성경 읽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5명 모두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임에도 성경 읽기가 이렇다면, 성경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도 거의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해 수준도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공부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40대 남성 목회자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었다. 이런 현실은 비록 5명이라는 적은 표본에도 불구하고, 강화 베다니교회, 나아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런 현실 역시 명(明)과 암(暗)이 모두 존재한다. 그동안 필자의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에 대해 당위성만을 강조했다, 실제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공부할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이 읽어도 쉽지 않은 성경을 젊은이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체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몇몇 중대형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에서는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 거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이런 어두운 현실은 통성경학교를 통해 성도들의 성경 읽기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실제로 심층 인터뷰에 응한 다섯 사람 모두 통성경학교를 통해 달라질 성경 읽기와 성경 지식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셋째, 통성경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것이다. 우선 운영자의 관점에서 통성경학교의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학생 모집이다. 강화 베다니교회에서 <경기 김포·강화 센터>를 세우고, 2016년 첫 모집을 했을 때, 53명이 등록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채 20명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개교회에서 통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모집 인원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적으면 소그룹으로, 소수정예로 운영하면 된다. 그러나 지역 센터의 경우 모집 인원이 적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테면, 강사료, 간식비, 제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 등을 고려하면,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역 센터의 경우 숫자가 너무 적으면 분위기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성경학교의 운영에 있어, 참여한 학생들의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불만 사항은 없었다. 이를테면 성경학교 수업 날짜, 시간 등은 대체로 무난했다.<sup>1</sup> 통성경학교는 개강부터 수료까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어차피 통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상황이 허락한다면 평일반, 주말반,

---

<sup>1</sup> 통성경학교 수업은 1, 2차 모두 토요일 오전 9:30부터 오후 12:30까지였으며, 중간에 10분씩 휴식 시간이 있었다.

오전반, 오후반 등 다채롭게 시간 구성을 달리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물론 이 또한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허락되는 교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수강료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담스러워 했다. 통성경학교의 수강료는 2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sup>2</sup> 이렇게 산출한 근거는 각종 교재비, 강사 사례비, 간식비, 운영에 필요한 기타 경비를 고려해서 나온 값이다. 사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다행히 우리 센터의 경우 성도 한 분이 통성경학교를 위해 꽤 큰 액수를 기부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장학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비전교회 목회자와 사모님에게는 50% 장학혜택을 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다만,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수강료는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사실 수강료는 강사 사례비, 운영비 등을 아끼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결론적으로, 통성경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은 매우 만족도가 높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철저하게 준비된 통성경학교 운영 매뉴얼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통성경학교 강의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강의 뿐 아니라, 강사, 교재, 과제 등도 포함된다. 우선 강사는 앞서 인터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여러 강사가 강의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으나, 강사에 따라 강의의 질이나 성실성 혹은 충실도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잘 준비된 강사는 호평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몇몇 강사의 경우는 불만도 없지 않았다. 특히 수강하는 학생들의 강사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냉정하고 현실적이었다. 특히, 통성경학교의 강사는 통성경학교의 목적, 비전과 목표, 방향 등을 잘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몇몇 외부 강사의 경우, 강의가

---

<sup>2</sup> 통성경학교 총 교육 시간은 10주 30시간이다. 시간에 비추어 보면 큰 액수가 아닐 수 있으나, 현재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소용되는 비용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액수라 할 수 있다.

아닌 설교 형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실수를 했다. 또 어떤 강사는 교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나 예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사의 문제는 능률보단, 성실성, 사전 준비, 표현력, 교재에 대한 충실도, 강의를 끌어가는 능력, 학생들과 인격적 교감 등 다채롭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사의 역량 문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로 통성경학교의 성패가 강사에 달린 만큼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교재는 대부분의 수강생이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내용의 충실성, 직관적인 구성, 난이도 등 모든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다만 과제는 대체로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사실 통성경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과제를 통한 실력 향상에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성경학교의 이런 강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 부담을 느꼈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들 중 한 두 명은 과제를 충실하게 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통성경학교의 강의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강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통성경학교에서 배우기 이전과 비교하여 수료 이후의 변화에 관한 부분이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통성경학교를 수료한 결과가 좋지 않다면, 패밀리 스쿨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성경학교 수료 후에 너무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변화가 많이 감지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통성경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전에는 막연하게, 혹은 당위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공부

후에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잘 모른다. 강단 의존도가 높은 한국교회의 경우, 성경은 그저 설교를 듣기 위해 잠깐 보거나, 큐티<sup>3</sup>할 때 보는 것 정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통성경학교를 통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둘째, 성경에 대해 흥미가 살아나 성경이 읽고 싶어 진다는 것이다.

통성경학교를 통해 통성경을 배우고 나니, 성경에 관심이 생기고 흥미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사실 교육의 최고의 성과 중 하나는 계속되는 지적 호기심이 생겨 학생 스스로가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성경학교는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큰 동기가 된다. 실제로 통성경학교는 메인 교재 뿐아니라, 보조교재, 그리고 성경 자체를 계속 보면서 강의와 과제를 해야 하기에 그 자체로 훌륭한 공부의 자극제가 된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통성경학교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성과로 여겨진다.

셋째, 역사 순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읽으니 성경이 훨씬 잘 읽힌다는 소회도 공통적이었다. 다섯 명의 인터뷰 대상자도 인정했듯이 성도들 대부분이 년 초에 성경 읽기를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이 되고 만다고 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저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게 읽는데, 레위기를 만나면 일단 주눅이 든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위기를 딛고 더 진행해 나가다 보면 이제 복잡한 역사와 시간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역사 순으로 읽지 않음으로 인해

---

<sup>3</sup> Q.T: Quiet Time, 일명 경건의 시간이라 하여 아침 혹은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발생하는 시간상의 충돌과 복잡한 구조, 거기에 난해한 성경 내용과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부족이 어우러져 결국 포기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실 성경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구약의 경우 왕정 500년의 역사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어쨌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역사 순으로 읽지 않으면 쉽게 읽기가 어렵다. 그런데 통성경학교를 마치고 나면,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된다. 성경을 시간 순으로, 역사 순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넷째, 통성경을 공부한 후에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갖게 되어 성경 통독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성경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성경 나름의 큰 그림이 있다. 이를테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7개의 트랙으로 나뉠 수 있다. 이 큰 그림만 알고 있어도 성경 전체의 맥락과 분위기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 큰 그림을 그려 놓고, 작은 그림을 채워 넣으면 그림이 완성된다.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 숲 전체를 구석구석 다 볼 수 있게 된다. 먼저 큰 그림을 보고, 그 후에 디테일을 보면 정말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배우고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통성경학교를 수료한 나이가 많은 분들의 경우 자녀들에게 패밀리 스쿨 기회를 잃은 것을 많이 안타까워했다. 어떤 분은 왜 진작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는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손자들에게라도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하신 분들도 많았다. 그리고 인터뷰에 응한 성도들의 경우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당위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물론 당장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사실 통성경학교의 본질 혹은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부모가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패밀리 스쿨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 계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가정이 살면, 교회 공동체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통성경학교 수료 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크게 고무적이다. 물론 갈 길은 멀다. 자각한 것이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통성경학교는 그 자체로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와 자극을 준 것이 사실이다. 통성경학교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리고 마친 후에 일어난 변화는 교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만큼 통성경학교 수료 후의 변화는 눈에 띠게 두드러졌다. 통성경학교의 장밋빛 미래를 낙관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하겠다.

## 제 VI 장

### 결 론

#### 요약과 평가

지금까지 통통성경학교(Tong Bible School)의 목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았다. I 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을 위한 문제 제기와 필요성, 연구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I 장에서는 통통성경 학교에 대해 다뤘는데, 통성경학교의 기초가 되는 통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어서 통성경학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성서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뤘다. III 장에서는 통성경학교(TBS)의 운영과 실재를 다뤘는데, 통성경학교의 특징, 목표와 비전, 방법론, 커리큘럼과 교육과정, 통성경학교의 교재와 강사, 통성경학교 개설과 운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IV 장에서는 통성경학교의 기능에 대해 다뤘는데, 효과적인 성경 통독, 패밀리 스쿨, 교회교육 프로그램, 목회자를 위한 통설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 장에서는 통성경학교 수료자 심층 인터뷰와 그 인터뷰 내용에 관한 결과 분석을 정리했다.

본 논문이 ‘통성경학교의 목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모든 목회자의 목회적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성경학교를 통해 적어도 성경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는 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계승의 차원에서 가정에서는 패밀리 스쿨을

가능하게 하고, 개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육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기독교교육의 획기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통성경학교를 통해 효과적인 성경 통독이 가능하고, 목회자들에게는 통설교의 지평을 넓혀 줄 수 있다. 또한, 개교회에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나 임원 재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결론과 제언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다. 밖으로는 신뢰도의 추락으로 전도와 선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안으로는 자정 능력의 상실과 더불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젊은 세대들의 급격한 교회 이탈은 현재 우리의 고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어떤 대안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 기독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지만, 크고 작은 변죽만 울렸을 뿐, 제2의 종교개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교단 별로 크고 작은 행사로 그저 500주년이었다는 것만 강조했다, 변화를 위한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 보냈다. 그러나 그런데도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작은 몸부림도 있었다. 바로 “모든 성경을, 모든 민족이, 모든 가정에서” 라는 강령을 내걸고, 통성경을 세계화하고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독일 비텐베르크 대회에서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대회 때, 통박사 조병호가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오직 모든 성경을, 오직 모든 민족이, 오직 모든 가정에서 다섯 살부터, 오직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sup>1</sup>

19명의 초청된 스피커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성경 자체를 이야기한 조병호의 이런 외침은 결국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아니 세계 교회와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었다. 조병호의 이런 외침은 오히려 국내에서 먼저 잔잔한 파도를 불러일으켰다. 지금으로부터 2천 8백여 년 전에 미가는 이렇게 말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sup>2</sup> 미가의 예언대로 결국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 또한, 2천여 년 전에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sup>3</sup>라고 했지만, 결국 나사렛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통성경을 세계화하겠다는 꿈은 세계의 변방 대한민국에서, 또한 대한민국의 변방 가평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도 위대한 꿈은 서서히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결국, 대안은 Back To the Bible이고, 결론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 옛날 다니엘은 이미 세계 모든 사람이 빠르게 왕래하며, 지식을 공유하고, 쉽게 소통하게 될 날이 올 것을 그의 책에 기록해 놓았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sup>4</sup> 세계는 바야흐로 통(通)의 시대다. 이제 지구촌(地球村)이라는

---

<sup>1</sup> 조병호, 통바이블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독일 비텐베르크 대회 강연, 68.

<sup>2</sup> 미 5:2.

<sup>3</sup> 요 1:46.

<sup>4</sup> 단 12:4.

말은 옛말이다. 세상은 바야흐로 손바닥만 한 휴대폰 안에 있다. 세계는 스마트하게 휴대폰 안에서 완벽하게 연결되어(通) 있다. 세상은 휴대폰으로 통한다. 거대한 정보화를 바탕으로 온 세계와 개인은 이제 너무나 스마트해졌다.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는 성경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터치한다. 무겁고 불편한 종이 성경책이 빠르게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성경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이 버려지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성경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sup>5</sup> 스마트한 세상에 어울리는 스마트한 성경 공부 방법론은 바로 통성경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통성경학교이다.

본 논문의 끝자락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제 성경은 통성경으로 나아가야 한다. 온 세상은 스마트해졌고, 그 결과 세상은 서로 긴밀하게 통한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代洗)이다. 마찬가지로 통성경 역시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따라서 더는 교회와 개인은 성경을 과편화하지 말아야 한다. 66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봐야 한다. 다시는 오바다와 빌레몬서가 그 분량이 작다는 이유로 홀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한 권의 성경이듯이, 오바다와 빌레몬서 역시 한 권의 권위 있는 성경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통(通)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만약 기독교만이 여전히 통을 거부하고 부분과 해체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인간과 통(通)하고 싶고, 세상과 통(通)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필자의 첫 번째 결론은

---

<sup>5</sup> 사 40:8.

통성경이다. 교회에서도 통성경을 하고, 가정에서도 통성경을 해야 한다. 통성경을 하면 스테반처럼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선교 충만할 수 있다.<sup>6</sup>

둘째, 교회는 통성경학교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의 교육 현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방향 상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공교육은 여전히 좌충우돌한다.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은 어떤가? 일단 교회학교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는다. 단적인 예로 강화 베다니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강화동지방 안에 36개 교회가 있는데, 천 명이 넘는 대형 교회나 500명 이하 교회, 그리고 작은 시골교회 할 것 없이 교회학교 규모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굳이 저출산에 따른 자연감소를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학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 지점이 가장 큰 교회교육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교회교육의 위기는 단순한 수적 감소만이 아니다. 이미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 모두 천편일률적인 교회교육에 피로감을 느낀다. 교재나 방법론은 좀 더 화려해지고, 입체적으로 변했지만, 감정만 자극할 뿐, 학생들을 변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심하게 말해 이미 좌초되기 시작한 교회학교를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현재 교회교육의 본질이 교재나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통성경학교이다. 통성경학교를 통해 교사부터 재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된 교사가 학생들에게 통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성경에 관해서가(about the Bible) 아니라, 성경 자체(the Bible itself)를 가르쳐야 한다. 앞서 충분히 논증했듯이 새로운 시대 교회의 성경 교육의 대안은 오직 통성경학교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교회는 통성경학교를 통해 교사의 성경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중직자들은

---

<sup>6</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71.

물론 일반 성도들의 성경 역량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교회학교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교육할 때, 다음 세대의 교회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차세대 교회교육은 통성경학교에 달려 있다고 확신한다.

셋째, 가정은 통성경학교를 통해 패밀리 스쿨로 나아가야 한다. 공교육도, 교회교육도 위기라면 과연 가정교육은 어떤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가정교육은 더욱 큰 문제다. 왜 그런가? 부모가 가정교육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의 가정은 두 부모 모두 생활 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육아’ 라는 말은 남의 이야기다. 젖을 떼자마자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겨진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학원과 과외 선생님이 아이를 책임진다. 이는 가정교육의 대상이 되는 자녀들이 오직 학교공부와 입시 위주의 공부에 갇혀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상실된 지 오래다. 심지어 요즘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SNS<sup>7</sup>로 대화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가정교육이 가정에서 부모가 감당한다는 것은 어느덧 구시대적인 발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교육을 내버려 둘 것인가? 과연 이런 물줄기의 흐름을 돌이킬 방법은 없을까? 있다! 바로 패밀리 스쿨이다. 패밀리 스쿨이야말로 무너진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대안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교육방법이기 때문이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만나 세대가 한 세대 만에 신앙 계승에 실패한

---

<sup>7</sup> SNS란 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말하고 웹상에서 친구, 선후배, 동료 등 지인과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인 SNS의 종류로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이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 패밀리 스쿨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사 시대의 암울했던 상황에서도 보아스가 월등한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패밀리 스쿨의 성공 때문이었다. 다윗도 이미 그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패밀리 스쿨을 통해 공부했기에, 골리앗을 향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sup>8</sup>. 그것도 10대(代)의 나이에! 통성경학교는 패밀리 스쿨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대안이다. 이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통성경학교를 통해 패밀리 스쿨을 시작할 때가 왔다. 그 옛날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패밀리 스쿨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패밀리 스쿨은 통성경학교로부터 시작된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가? 아직 늦지 않았는가? 혹자는 지금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이 거의 끝나간다고 말한다. 실제로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와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시간의 촉박함을 운운하기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대안이 있다. 바로 통성경학교라는 검증된 대안이 있고, 우리는 그 대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에 필자는 각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제안한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목회자의 각성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오직 말씀’ 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체가 분명한 통성경과 통성경학교로 나아가자. 통성경학교를 통해 교사를 교육하고, 그렇게 배운 교사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통성경학교를 통해 부모를 교육하고, 이렇게 배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너져가는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최고의 지름길이라 확신한다. 통통의

---

<sup>8</sup> 삼상 17:47.



시대에 통성경과 통성경학교를 통해, 패밀리 스쿨이 불길처럼 일어나, 성경으로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살고, 교회가 부흥하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꿈을 꾸어  
본다.

‘모든 성경’ 을,  
‘모든 민족’ 이,  
‘모든 가정’ 에서!

All the Bible,  
All the Nation,  
All Households!

## 참고 문헌

### 국외 서적

Sweet, Leonard. *The Gospel a According To STARBUCKS*. Colorado: WaterBrook Press, 2007.

### 번역 서적

Peterson, Eugene H. *메시지 신약 영한대역*. 서울: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10.

슈미트, 베르너 H. *구약성경 입문 I*. 차준희·채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스윗, 레너드.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옮김. 서울: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15.

*연대기 성경, The Narrated Bible* Oregon: Harvest House Publishers, 1984,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9.

### 국내 서적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 신명기 제1-11장*. 서울: 성서교재, 1999.

이문장. *한국인을 위한 성경연구*.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4.

*최신성경사전*. 서울: 성지사, 1993.

조병호. *그 순간*.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조병호. *마음 훈련*.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조병호. *성경과 영성*.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조병호. *성경을 통한 기도*.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조병호. *성경 즐기기*.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조병호. *성경 통독과 통신학*.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09.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8.

-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4.
- 조병호. *통바이블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독일 비텐베르크 대회 강연*.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7.
- 조병호. *통박사 조병호의 통성경학교*.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6.
-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6.
- 조병호. *통이다 LET' S 通*.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09.
-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6.
-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북1,2,3*.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7.
- 조병호. *7가지 질문*.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 논문, 잡지, 기타 간행물

- 권혁승. “회당의 기원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13, 2002, 93-104.
-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 교수 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신학파 세계* 84, 2015, 526-554.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리플렛*

### 웹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성경통독원 <http://tongdok.net/>

성경통독원 온라인서점 <http://tongbooks.com/shop/main/index.php>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Jinyoung Ha

Place and Date of Birth: Pocheon, South Korea, Jun.24, 1969

Parent`s Names: Mansoo Ha and Yangja Yoon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Seoul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Attached to College of Education</b> Wolgokro 6, Seongbuk-gu, Seoul, South Korea.	Diploma	Feb. 12, 1988
Collegiate: <b>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b> 107, Imun-ro, Dongdaemun-gu, Seoul, Korea	B. A.	Aug.20, 1993
Graduate: <b>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b>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Korea.	M. Div.	Feb. 19, 200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

Signature

Jinyoung Ha

Name typed

May 4, 2018

Date